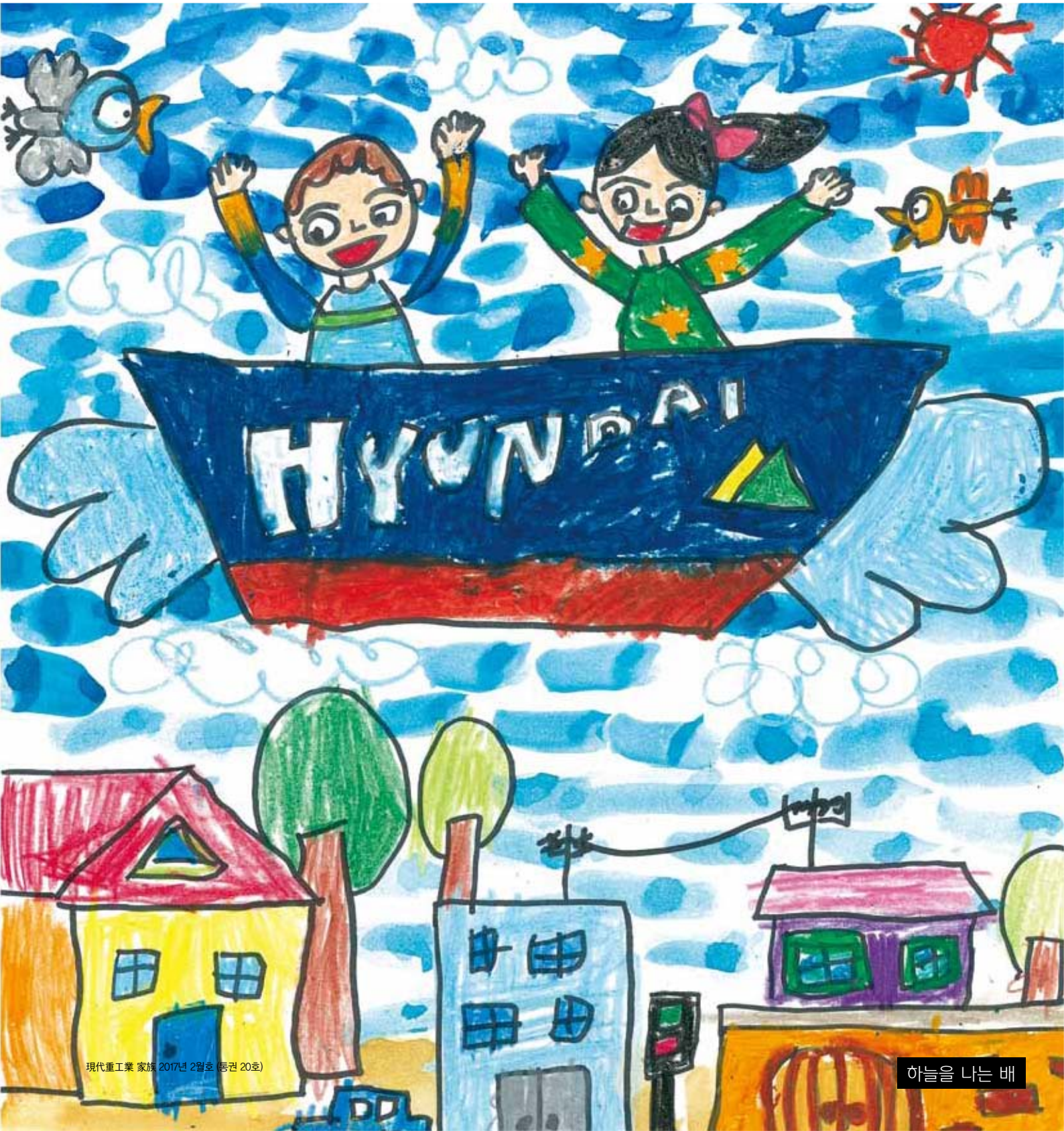
현대중공업가족

02
2017



現代重工業 家族 2017년 2월호 (통권 20호)

하늘을 나는 배

이달의 표지 주인공

강준영 군(7세, 아일외국어유치부)
강민구 사우(현대중공업 BARONIA공사부) 자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해맑게 웃는 모습에 장난기가 가득 느껴지는 준영 군은 '가족들과 함께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슈퍼맨처럼 마음껏 하늘을 나는 게 꿈이기 때문이죠.

준영 군은 영어를 잘하게 돼 미국으로 가게 되면 자신도 히어로들이 총출동하는 영화 '어벤져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어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호 표지에는 준영 군의 순수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누나 규림 양과 함께 배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새들과도 친구가 되고, 햇님과 구름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귀여운 바람이 엿보이네요.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배는 다 우리 아빠가 만든 거 아니야?"라고 묻는 준영 군에게는 뭐든지 척척 해내는 아빠 강민구 사우가 진정한 '슈퍼맨'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영 군이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지켜가며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커뮤니케이션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02

Contents

기획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04 생존을 위한 도전

06 新기술로 미래 연다!

08 生生 도전 현장

10 나를 위한 도전

12 이달의 도전
엘리베이터 없이 살아보기

사람 · 일

14 사우 자녀 그림 공모전

16 현장을 가다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특수기기2팀

20 이달의 화제
현중인상, 미포인상, 삼호인상 수상자

23 아름다운 동행
현중어머니회 대통령 표창 수상

24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실설계부

26

32

36

50

52

26 새 얼굴, 새 활력!
현대중공업 신입사원

28 안전한 일터
현대중공업 '안전한 DAY' 캠페인

30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전혜린 사원이 공사지원부 지원2팀에게

32 그룹사 탐방
② 현대글로벌서비스(주)

34 든든한 파트너
(주)마린텍

36 세계를 가다
② 인도

38 그때 그 시절
1977 · 1987 · 1997 · 2007년 2월

40 재미있는 바다 이야기
해양바이오

지역 · 삶

42 이달의 모임
현대삼호중공업 배구동호회

44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원어민 화상영어

45 울산 지역 소식
울산대교 입구 프로펠러 조형물

46 이달의 축제 정월대보름

48 자녀와 함께
울산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50 가볼 만한 곳
향기체험숍 '프루스트'

52 그 겨울의 찻집 경주 '애비뉴'

54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화정동 최영자 할머니

56 건강칼럼
관상동맥질환

58 나를 만나는 시간
공황장애

보람의 일터

60 회사 주요 소식

64 그룹사 소식

66 문화 포커스

68 축구단 소식
열두 번째 선수, '팬과 치어리더'

70 현중 가족 글마당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80 생활법률

81 만화

82 쉬어가는 페이지

83 이달의 명화

사업별 경쟁력 높여 각자 생존 길 찾는다!

**“시련이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없으면 닦아나가면 된다.”
정주영 창업자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한 번 해보는거다’ 라며 밀어 붙이는 열정이 있었다.
오늘날 현대중공업그룹은 유례가 없는 큰 시련과 맞닥뜨리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창업자의 도전정신을 본받아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높아져

현대중공업그룹에게 지난 몇 년은 악몽 같았다. 2013년 연말부터 시작된 적자는 9분기 동안 계속됐다. 지난해 마침내 이 고리를 끊어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최악의 수주 절벽이 덮쳐왔다.

조선업은 경기 변동에 유난히 민감한 산업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교역이 줄어들어 배가 남아돈다. 이에 따라 조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어 공급과의 불균형이 생긴다.

2008년 금융위기 뒤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됐고, 그 후로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선박의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해운 운임이 상승할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보다 70%나 감소했다.

여기에 저유가의 영향으로 해양플랜트의 발주가 끊겼고,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엔진과 전기전자 등 다른 사업 분야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도 전 세계 조선·해운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소의 피해가 유독 심각해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한 때 세계를 호령하던 한국 조선업은 급기야 17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하며, 세계 3위로 내려앉았다.

일본 조선업계가 업체 간의 합병과 제휴 등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자국 해운사의 선박 발주를 통해 버티고 있는 것에 반해, 뒤늦게 대응에 나선 한국 조선업은 불황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생사의 기로 앞에서 늘 '하던 대로' 하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많은 도전을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제 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6개의 독립회사로 사업을 재편하고, 핵심사업 육성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 사업을 한 울타리 안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했고, 매출 비중이 큰 조선·해양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 일부 사업은 독자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가 출범했으며, 오는 4월에는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사업본부), 현대로보틱스(로봇사업부)가 독립회사로 분리된다.

각 회사는 분리 후 사업 특성에 맞는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연구개발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해 품질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현대미포조선은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이 적용된 선박을 건조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 대형화, 자동용접 확대 적용 등 공법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선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생산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크별로 전문 선종을 지정하고, 효율을 중심으로 공장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환경 규제에 맞춰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을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연료를 적용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해 친환경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늘날 현대중공업그룹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그리고 재도약의 역사가 있었다.

막 지어진 조선소에는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몸으로 부딪쳐 뚫고 나가겠다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임직원들이 오늘날의 현대중공업그룹을 만들어 왔다.

오늘의 위기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도전의 DNA가 희미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들어올 이익이나 눈앞의 상황이 아니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꾸준히 기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눈앞의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때 비로소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변화를 위한 도전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오늘날, 정주영 창업자가 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이다.

"이봐, 해보긴 해봤어?"

새로운 도전으로 기회 잡는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으로 매우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불황 속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래 신기술 지속적 준비

현대중공업은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조선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서는 조선·해양산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ICT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ICT 조선·해양 융합 선포식'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국내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은 1차적으로 중소 ICT기업들과 내업공정 표준 시뮬레이터, 빅테이터 기반 제품수명관리(PLM) 설계 표준 플랫폼 등 4개 과제를 공동 개발하고, 실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드릴십 등 미래 시장에 대비한 신선종 개발 노력도 한창이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데릭(Derrick/시추탑)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점을 보완해 고온, 고압의 유전 개발이 가능한 고성능 드릴십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가 하락으로 침체된 드릴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을 높이고 건조성을 개선한 스마트 드릴십도 준비하고 있다.

해양사업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연근해용(Near-Shore)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개발을 추진 중이다.

가까운 바다에서 LNG가스에 대한 최소한의 전처리와 액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설비는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기 때문에 기존 FLNG에 비해 상부 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새로운 사업 진출도 활발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는 해외 민자발전(IPP/Independent Power Plant)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발전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을 총괄하는 사업으로, 현대중공업은 엔진 발전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발전사업자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효율화 신시장에 진출했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은 각종 에너지 공급이용기기에 ICT를 융합해 설비 자동제어, 원격 검침, 조명 제어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건설장비사업에서는 최근, 차세대 원격관리시스템인 '하이메이트 2.0'을 개발하고, 올해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이메이트 2.0은 웹사이트는 물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 여러 대의 장비를 한 번에 시동 걸고 실내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진단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선 건조로 틈새시장 개척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다양한 신종선을 차질 없이 건조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매진한다.

이달 말에는 세계 최초로 LNG연료탱크에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을 적용한 5만톤(DWT)급 고부가 벌크선을 착공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개발한 신소재인 고망간강은 영하 162℃에 달하는 극저온의 LNG를 보관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합금소재에 비해 강도와 인성이 월등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이 선박에는 고망간강을 적용한 연료탱크뿐 아니라, 벙커C유와 LN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엔진'이 탑재돼 전 세계 조선업계 및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가 개발한 '하이메이트 2.0' 시스템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는 15년 만의 여객선 건조에도 나선다. 최대 724명의 승객과 함께 20피트 컨테이너 320개를 동시에 싣고, 최고 25노트로 운항할 수 있는 이 선박은 내년 하반기 인천-중국 웨이하이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7천500입방미터(㎥)급 LNG벙커링선의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 선박의 데크에는 연료 공급 배관라인을 연결해주는 '로딩 암(loading Arm)'이 설치돼 바다 위에 있는 선박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LNG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앞으로 소형 LNG선과 스테인리스강이 적용된 화학제품운반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선종 다변화를 통한 활로 개척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최고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창사 이래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구슬땀을 흘려온
우리 사우들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중공업그룹을 있게 한 주역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연구소에서,
사무실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는
사우들의 생생한 도전 현장을 엿보았다.

• 현대중공업 도장5부 1과 1팀

장마와 더위도 꺾지 못한 열정

현대중공업 도장5부 1과 1팀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리콘이 함유된 방오(防汚)도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크누센(KNUTSEN)사의 LNG 운반선 2척의 도장 작업을 했다.

실리콘 도료는 선박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 연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분진 날림이 심하고 준비과정이 복잡해 작업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최근 10년 가까이 실리콘 도료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도장 작업은 1팀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특히 도료 제조사에서 파견된 감독관들의 엄격한 감리 하에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컸다.

1팀은 그 당시를 '살인적인 더위와 숨 막히는 습기'로 기억한다. 첫 번째 선박의 도장 작업이 여름 장마철에 진행됐는데, 분진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쳐놓은 천막 때문에 후텁지근한 공기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작업에 상당한 고역을 치렀던 것이다.

거기에 실리콘 분진이 바닥, 작업화, 보안경까지 가리지 않고 달라붙어 사방이 미끄러웠고, 바닥에는 빗물까지 고여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험난한 도전이었지만 이들은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선박 두 척의 도장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도료 제조사인 아이피케이(IPK)사의 감독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줘 놀랐다"고 말했다.

아이피케이사는 이들의 실력과 책임감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1팀 작업자들에게 한국 최초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장사(Qualified Applicator)' 인증도 수여했다.

팀원들은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다"고 농담을 하면서도, "실리콘 도료 작업은 우리 팀이 회사 최고"라는 자부심을 보였다.

이들의 또 다른 도전과 성공을 응원해 본다.

• 현대미포조선 선실설계부 선실1과

호텔 못지않은 '명품 여객선'에 도전

현대미포조선은 2016년 7월 한국과 중국의 합작선사인 위동항운으로부터 3만1천톤급(GT) 로팩스(RO-PAX,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선박) 1척을 수주했다. 현대미포조선이 2002년 1만7천톤급 여객선 '성희(星希)'호를 인도한 이후 15년만이다.

여객선은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다. 때문에 일반 상선을 건조할 때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면세점, 게임룸 등 선내 각종 시설들의 경우에는 편의성과 함께 심미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건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대미포조선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선실설계부 선실1과를 여객선 선실설계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실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선실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선실1과 9명의 사우들은 명품 여객선의 성공적인 건조를 위해, 결연한 각오로 도전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성희'호 건조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와 타사의 여객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공부하는 한편, 해당 선박의 구체적인 사양을 숙지하고 신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에도 돌입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연안여객선에 직접 승선해, 각종 시설의 배치 및 특이사항, 내부 인테리어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들은 그동안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본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 4월까지 생산도를 완성한 뒤,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최고급 호텔 못지않은 명품 여객선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도전에 나서고 있는 이들이 만들어낼 명품 선박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현대삼호중공업 선행도장부 방식기술팀

'산악 등반 기술'로 안전 높인다!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다. 그렇다 보니 추락 사고의 위험이 높아 작업자의 몸을 생명선(Life line)에 고정해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생명선은 선공정에서 안전하게 설치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여러 공정상의 이유로 누락될 경우, 현장 작업자들이 전문기술 없이 생명선 설치를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위험이 높았다.

이에 현대삼호중공업 선행도장부 방식기술팀은 생명선 설치에 산악 등반기술을 접목하자는 제안을 했고, '생명선 119 제도'가 도입됐다.

생명선 119는 로프 설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 산악인들이 특화된 등반기술을 활용해 생명선을 설치하고 철거해주는 것이다. 조선업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산악기술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분야의 기술을 과감히 끌어온 방식기술팀의 시도가 돋보인다.

이밖에도 방식기술팀은 후행도장을 위한 전처리 자동화 장비를 개발해 주목 받기도 했다.

조선업은 다양한 조건에서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 중 자동화가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전처리 자동화 장비는 자유롭게 작업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적절하게 장비를 교체할 수 있으며, 원거리에서도 조작이 가능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효과적인 적용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방식기술팀 이정기 부장은 "기술 개발에는 불가능한 수준이나 영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남겼다.

방식기술팀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새로운 도전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의 손에서 앞으로 어떤 작품이 더 나올지 기대가 모아진다.

새로운 도전에 설렘 가득, 달라진 나를 꿈꾸며!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달라질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 좋은 도전을 펼치고 있는 사우들과 만났다.

'품질과 안전' 동시에 챙기는 전문가

김진실 대리 (27세, 현대중공업 조선품질경영1부)

품질관리 업무를 위해 현장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 품질도 품질이지만 작업장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안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현장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야간자율직무교육을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평소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품질과 안전을 함께 챙기는 현장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100권의 책 읽고, 사람들과 공유할 것

백기동 차장(45세,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책을 읽고도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책을 읽고 간략하게라도 독후감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고, 느낀 점과 기억에 남는 문구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혼자만의 공간에 남기기보다는, 포스트(POST)라는 인터넷 공간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SNS에도 도전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독서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수 포스트'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만의 공간을 알차게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고단백 식단으로 건강 찾겠습니다!"

이준우 사원(38세,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지원부)

운동선수나 헬스 트레이너, 연예인들이 즐겨하는 체중감량법에는 '단백질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 위에 남아 있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죠.

저 역시 새해를 맞아 체중 감량과 체력 강화를 위한 '고단백 식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콩류 등 고단백 음식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니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겼는데, 한국인이 밥을 먹지 않고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군요. 하지만 온전히 저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 강한 의지를 갖고 도전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금빛 트로피'를 꿈꾸며

서명규 기장(52세,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1부)

여가활동 삼아 시작한 배드민턴이 제 삶에 큰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몸도 더욱 건강해졌고, 목표 의식과 승부욕도 강해졌습니다.

올해 목표는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처음 출전한 전국 직장인 배드민턴 대회에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에는 실력이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나가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꼭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1월부터 여러 동호회와 시합을 하며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승자를 만든다!

윤명식 대리 (34세, 현대미포조선 건조1부)

승자와 패자는 생각이 아닌 실행에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미국용접협회(AWS)에서 주관하는 CWI(Certified Welding Inspector)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지는 않지만, 건조부서에서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용접에 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용접의 품질 향상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날까지 좋아하는 술 약속도 자제하고,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나눔을 통한 새로운 보람 찾기

추연광 사우(37세, 현대중공업 도장5부)

저는 매년 목표를 세우고, 고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지난 2년간 위험물과 가스 종목에서 두 개의 기능장을 취득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에 편입학해, 전문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을 돕는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저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제가 배운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보람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초보 발레리나의 걸음마

김희정 사원(27세, 현대삼호중공업 계약운영부)

여자라면 누구나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모습을 동경하곤 합니다. 쭉 뻗은 팔다리와 곧은 몸 선,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이 우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레오타드를 입고 토슈즈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스트레칭 수준이지만, 열정을 갖고 뻣뻣한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단한 동작에도 의외로 운동이 되고, 체형 교정의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필라테스, 스피닝, 헬스 등 다양한 운동을 해봤지만, 발레가 가장 재미있고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왕초보지만, 백조처럼 우아한 몸짓을 뽐낼 날을 꿈꿔 봅니다.

계단 오르는 발걸음 따라 **행복과 건강도 함께**

송년회, 신년회 등을 거치며, 불어난 체중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우들이 있다면 '계단 오르기'를 추천한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히 걷는 것에 비해 2배 이상의 칼로리가 소모되고, 다리의 근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허리질환 예방에도 좋아 '공짜 보약'이라고도 불린다. 현대미포조선 신관 6층 선장설계부에서 근무하는 임세혁 대리(32세)가 일주일간 엘리베이터 없는 삶에 도전했다.

1일차

계단 오르GO, 건강 찾GO

엘리베이터 없이 살기로 마음먹은 첫 날, 날씨가 추워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눈에 보이니 당장이라도 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는 각오로 엘리베이터 없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지만, 귀찮음이 문제였습니다.
6층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약간 숨이 가팠지만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대견스럽고 뿌듯해 업무 집중도도 올라가고, 활력도 넘쳤습니다.

5일차

대형마트에도 계단이 있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난관은 주말이었습니다.
사실 계단 오르기를 시작한 이유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지 '굳이 나가서 운동을 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주말에는 집에서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백화점, 마트, 카페, 음식점을 갈 때도 계단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계단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비상구(계단)가 있기 마련이지만 직접 이용해 보니 신기했습니다.
마트로 들어갈 때나, 가볍게 장보기를 한 날에는 계단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2일차

엘리베이터보다 빠른 계단

이틀째가 되는 날, 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빠르다는 사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 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시간, 층층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 가끔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사라져 빈 층에 서는 시간 등 이런 것들을 합치면 계단이 평균적으로 더 빠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발견에 내심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3일차

바쁜 직장생활에 안성맞춤

계단 오르기는 직장인들 사이에 각광받는 운동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에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기엔 안성맞춤이죠. 특히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저의 도전이 부러웠는지 동료들도 식사 끝나고 소화시킬 겸, 저랑 같이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단은 이용하고 싶은데 혼자 올라가려니 쑥스럽고, 지루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동료들이 많아 새삼 놀랐습니다.
참고로 동료와 대화를 나누며 계단을 오르면 건강도 얻고, 친분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4일차

매일 2시간 13분의 수명 연장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칼로리는 0.15 내려가고 수명은 4초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2천 계단을 오르고 있으니, 매일 300칼로리를 소비하고 수명은 2시간 13분 정도 늘어난 셈이죠.
사소한 일상이지만 얻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와 오랫동안 같이 있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계단오르기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도전 4일째 하루를 보냈습니다.

6일차

계단 오르기에도 요령이 있다!

6일째 계단을 오르다 보니, 계단도 '잘 오르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 보면 넘어지기 쉬우므로 장갑을 끼고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계단을 오를 땐 가슴과 허리를 펴고 발바닥의 절반만 딛으면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에 도움이 됩니다.
차츰 계단 오르기에 익숙해지면 한 층은 빠르게, 다음 층은 느리게 오르는 등 속도 변화를 주면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7일차

작은 습관이 건강의 든든한 밑천

7일 동안 계단을 이용하니 생활 속 운동이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단을 오르니 몸이 가벼운 느낌이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아침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꿀맛이 되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바쁜 직장인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단 오르기 캠페인이 전사적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 마저 생깁니다.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하길 추천합니다.

임세혁 대리의 도전 모습을
블로그 hi.h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그림 공모전 출품작

제출된 그림 중 아쉽게 우수작으로 선정되지 못한 자녀들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순수하고 기발한 상상력 가득!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귀여운 그림들이 연일 사보편집실의 문을 두드렸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의 통합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의 표지를 장식할 그림을 찾기 위해 실시했던
'사우 자녀 그림 공모전'이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사우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다.

사우 자녀 290명 참가… 우수작 10편 선정

'미래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에서 290여명의 사우 자녀가 참가해 순수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뽐냈다.

접수된 작품 중에는 태양열,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운항되는 선박부터, 화물 운송과 바닷속 청소를 함께 하는 착한 배 등 '미래 선박'과 관련된 그림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이 직접 만든 로봇이 집도의가 되어 수술을 하는 수술실의 모습이나,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건설장비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이 접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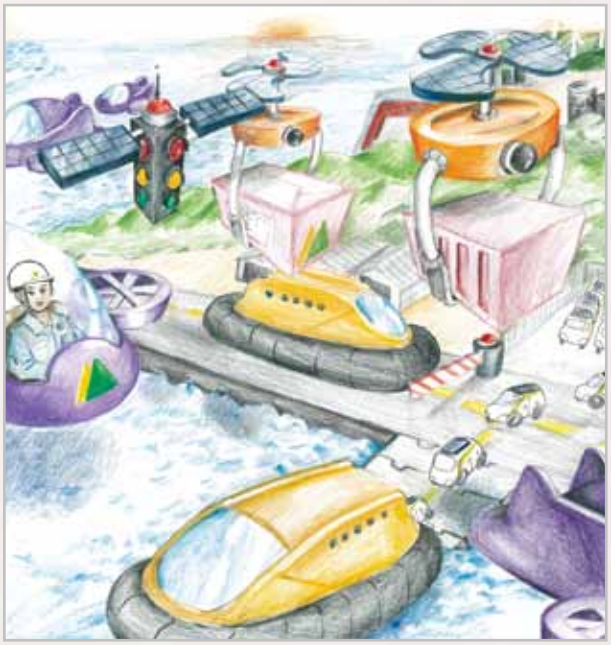
사보 편집실은 접수된 작품들 중에서 그 의미와 완성도를 고려해 10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우수 작품과 작품을 그린 사우 자녀들의 이야기는 2월호부터 11월호 사보를 통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그림들도 매달 사보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사우들과 함께 감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진 작품부터, 조금은 서툴지만 정성이 듬뿍 느껴지는 그림까지. 귀엽고 깜찍한 자녀들의 그림이 보는 재미를 더해줄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시라.

우수작

순번	제 목	자녀 이름	부모 이름
1	'하늘을 나는 배'	**강준영** (아일외국어유치부)	**강민구** 사우 (현대중공업 BARONIA공사부)
2	'바다를 정화하는 착한 배'	**김하연** (명덕초 3학년)	**김형일** 사우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2부)
3	'바다를 탐사하는 로봇'	**최효원** (예지슬유치원)	**최진호** 부장 (현대중공업 발전공사지원부)
4	'배들이 연결해 준 꿈의 기차'	**김서영** (백합초 4학년)	**김병수** 사우 (㈜청명기업)
5	'드론과 로봇으로 건조하는 선박'	**윤주하** (천곡초 3학년)	**윤재균** 사우 (현대중공업 해양도장부)
6	'바다를 청소하는 미래 선박'	**이수민** (교동초 2학년)	**이상충** 과장 (현대중공업 플랜트자재운영부)
7	'바닷속으로 떠난 나들이'	**박시영** (목포부주초 6학년)	**박남수** 과장 (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
8	'차세대 신기술 개발 성공'	**김민서** (서부초 4학년)	**김세겸** 대리 (현대중공업 해양인재운영부)
9	'육해공 전방위 배'	**김인영** (목포애향중 1학년)	**김재창** 차장 (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10	'태양열로 움직이는 선박'	**김준엽** (수암초병설유치원)	**김종훈** 과장 (현대미포조선 사업기획부)



‘태양열이 움직이는 세상’

전성수 부장(현대중공업 전력제어시스템부)의 자녀 **전서연** 양(현대중 2학년)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태양열 판넬을 통해 드론이 제품을 운송하고, 자동차도 움직입니다. 미래의 배는 강한 충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무펌프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상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 선박이 될 것입니다.

‘우주로 떠나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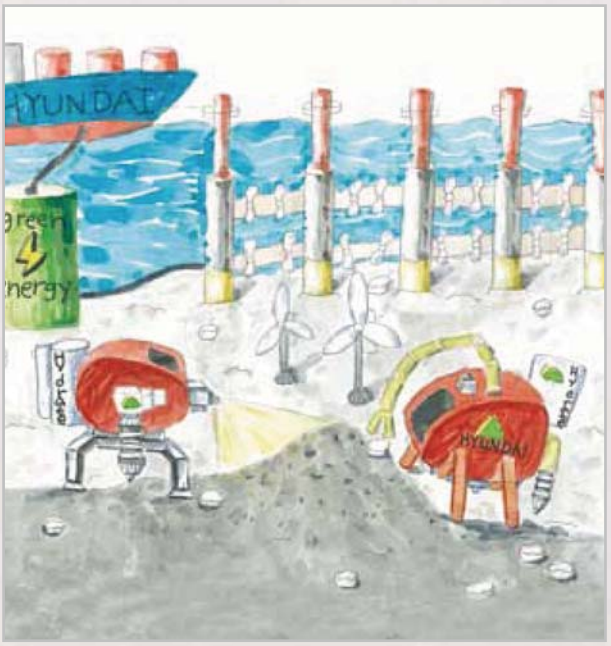
박정희 과장(현대삼호중공업 종합설계부)의 자녀 **박가은** 양(삼호서초 2학년)

우주로 떠나는 ‘우주배’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미래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만든 우주배를 타고 외계인도 만나고, 행성 탐사도 하고 싶습니다.

‘바닷속 현대중공업’

이준호 사우(현대중공업 총무부 산업보안과)의 자녀 **이도형** 군

땅이 부족해진 미래에는 바닷속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닷속 세상으로 들어오며, 주요 교통수단은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잠수함이 될 것입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권민재 차장(현대중공업 기본설계부)의 자녀 **권성현** 군(서부초 4학년)

가까운 미래 독도 앞바다에서 현대중공업이 제작, 발전시킨 수중 탐사로봇을 이용해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미래 에너지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고, 조류발전을 통해 에너지도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미래, 이들의 손에 달렸다!

프랑스 카다라쉬(Cadarache)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과학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7개국이 인류의 새로운 태양이 될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공동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인 수소원자핵들의 융합 반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구의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진공용기 9개 섹터 중 4개 제작

핵융합 발전은 연료 주입만 멈추면 몇 초 안에 가동을 멈춰 폭발 위험이 없고,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아 안전한 발전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나 연료 고갈의 걱정이 없고, 발전 효율도 높다.

현대중공업은 국제핵융합실험로에 들어가는 진공용기 섹터와 포트(진공용기와 저온용기를 연결하는 구조물), TF 자석구조물 등 핵심설비 생산에 참여하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고 있다.

핵융합실험로의 진공용기는 총 9개 섹터로 구성된 이중 격벽 구조물로, 진공상태에서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고 각종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중공업은
국제핵융합실험로에 들어가는 진공용기 섹터와
포트(진공용기와 저온용기를 연결하는 구조물),
TF 자석구조물 등 핵심설비 생산에 참여하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특수기기2팀

현대중공업은 2010년 진공용기 본체 2개 섹터(1,6번)를 수주한데 이어, 지난해 7월 2개 섹터(7,8번)를 추가로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수주한 2개 섹터는 당초 유럽연합의 컨소시엄 업체가 만들 예정이었지만,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신 제작에 나서게 됐다. ITER 국제기구로부터 설계와 제작 기술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평균 경력 20년 이상… 실력자들이 모였다!

진공용기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플랜트설비생산부 특수기기2팀은 지난 1월 말 1차 수주분의 1단계 공정인 '안쪽 격벽(Inner Shell Plate)'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특수합금 소재로 이뤄진 진공용기 섹터는 60㎜ 두께의 후판을 고난이도 특수용접인 티그(TIG)로 용접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작업을 ANB 국제공인검사기관과 ITER 국제기구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야 하고, 오차 허용범위도 1㎜ 내외로 작아 검사 절차 역시 매우 까다롭다.

특수기기2팀은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모두 소화하며, ITER 프로젝트의 일등 공신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수기기2팀의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평균

▲ 현대중공업이 제작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진공용기 조감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이들은 고난이도 용접인 '6G TIG' 자격을 12명의 팀원 전원이 갖고 있을 만큼 현대중공업을 대표하는 실력자들이다.

현대중공업 사내 최고 기술자격인 명인 김근수 기원(57세)과 배도기 기장(62세)을 비롯해, 전국기능경기대회 메달리스트 출신 이정진 기원(37세)과 김성수 사우(23세) 등이 팀 내 기술력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기능장 취득자도 3명에 달한다고 하니, 말 그대로 '드림팀'이다.

KSTAR의 노하우가 ITER 공사 성공으로

현대중공업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에 들어가는 초고진공 용기, 극저온 용기, 초전도 자석 구조물 등을 제작한 바 있다.

특수기기2팀의 김길용 기원(58세)과 배도기 기장(62세)이 KSTAR 공사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 축적된 노하우가 ITER 공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특수기기2팀은 2010년부터 3년간 실물 절반 크기의 모형(Mock-up)을 제작하며 난해한 공정과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등 완벽한 공사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했는데, 이때도 KSTAR 제작에 참여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팀장인 이정진 기원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ITER 공사에는 뒤늦게 참여했지만, KSTAR 제작 당시 검증된 초전도 핵융합 기술을 ITER 국제기구에서 수용할 만큼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미인'들

특수기기2팀은 2006년 팀이 결성된 이후로 7년간 무재해 기록을 이어가는 등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2회 연속으로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최고 안전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개선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다. 최근에는 용접으로 인한 철판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공구(Jig)를 개발해, 연간 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팀원들 간의 단합력도 뛰어나다. 이들은 그 비결로 '당구'를 꼽는다. 당구를 좋아하는 박창현 사우(48세)가 젊은 사우들에게 하나 둘 당구를 가르쳤던 것이 계기가 돼, 지금은 매달 팀원 전체가 참여하는 당구 대항전을 열고 있다고 한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팔방미인'인 특수기기2팀은 4개의 진공용기 섹터 제작을 마치게 될 2020년에 프랑스 카다라쉬의 ITER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단순 설비 제작뿐만 아니라, 현지 설치 작업에도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핵융합 발전이 열어줄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작업에 나서고 있는 특수기기2팀 사우들은 오늘도 손과 발이 바쁘다.

2016년 빛낸 영광의 주인공들

**지난해 연말, 1년 중 가장 눈에 띄는 업무성과를 낸 사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현중인상·미포인상·삼호인상'의 대상자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하며 사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과 만나 보았다.**

현중인상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자재비 840억 절감

홍순준 과장
현대중공업 플랜트구매부
現 화공공사지원부 파견

현중인상 대상의 영광은 홍순준 과장(34세)에게 돌아갔다.
홍순준 과장은 2014년 3월부터 쿠웨이트 KNPC 정유공장(CEF MAB2) 공사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며 자재비 840억원을 절감했다. 초기 예산의 약 24.5%에 달하는 수치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조인트벤처(JV)로 공사를 수행 중인 대우건설(2.4%)과 업계 선진사로 꼽히는 미국 플루어(Fluor)사(8.9%)와 비교해도 월등한 성과다.
홍승준 과장은 뛰어난 업무 능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이달 중순부터 공사 전체의 '자재 총괄관리자(Project Material Manager)'를 맡고 있다. 전체 공사 금액의 약 40%에 이르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자재 관리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자재 총괄관리자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조인트벤처의 리더인 플루어사에서 계속 맡아왔는데, 이번에 홍순준 과장이 임명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다.
홍순준 과장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한다"며, "특히 선진업체들의 효율적인 구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큰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에서 홍순준 과장은 플루어사를 벤치마킹해 자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개선했다. 또한 업체 정보와 견적 금액을 설계, PM 등 관련 부서들과 공유함으로써,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 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발주처로부터 신규 업체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고, 공급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년간 200여회에 달하는 국내외 출장을 다니는 등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 다녔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현중인상 수상 당시, 입사 7년차이자 대리 직급이었던 홍순준 과장의 수상 소식은 젊은 사우들에게 특히 관심을 끌었다.
홍순준 과장은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사원, 대리급의 젊은 사우들에게 이번 수상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외 지사 근무나 다른 분야의 업무도 두루 경험하며 더욱 멋진 '현중인'으로 성장해나가고 싶다는 홍순준 과장. 열정 가득한 그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미포인상

비용 절감·온실가스 감축, 2마리 토끼 잡아

송광호 부장, **이진복** 과장,
김영일 과장, **류한진** 과장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현대미포조선에서는 지난해 '신개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58억4천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1만9천795톤(배출권 3억 7천만원)을 저감해 낸 시설보전부 사우 4명이 최고 포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현대미포조선의 에너지 비용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해 왔다. 2013년 정부가 산업전력 요금체계를 개편한데 이어, PC선 건조 물량이 증가하면서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광호 부장을 비롯한 시설보전부 사우 4명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현대미포조선 에너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와 가스히터의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기존 장비에 IT 기술을 접목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양만 공급하는 '신개념 에너지 구축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하지만 이를 전사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9억원이라는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했고, '기존 방식이 낫다'는 생산현장의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워 여러 번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냈고, 끊임 없이 주변을 설득했다. 이러한 오랜 노력 끝에 결국 필요성에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고, 큰 성과도 올릴 수 있었다.

신개념 에너지 구축 시스템의 핵심은 현대미포조선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기압축기를 IT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생산현장 5곳에 있는 23대의 공기압축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구역 및 시간별로 압력을 차등 공급해 낭비되는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와 더불어 도장공장 18개 구역의 난방 및 제습 장비도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다.

송광호 부장은 "현장에서는 아직도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는 에너지가 많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주변의 에너지 자원에 관심을 갖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삼호인상

묵묵히 따라준 부서원들 덕입니다!

전경석 부장
현대삼호중공업 판넬조립부

삼호인상의 주인공은 전경석 부장이다. 전경석 부장(48세)은 내업에서 선행탑재 작업을 함으로써 후공정인 외업의 부담을 줄이고, 건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2015년에는 PE블록 346개의 건조 물량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삼호 야드에서 건조된 모든 탱커선에 대한 선행탑재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기존에는 외업 공정에서 행해지던 자동차운반선의 링(Ring, 고리 모양의 초대형 블록) 역시 내업에서 먼저 작업하고, 데크 하우스 탑재를 지원하는 등 외업에 대한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선행의장 선각화와 용접 자동화를 통해 공장 효율도 높였다. 이를 통해 일부 선박은 의장품 선행화 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서기도 했고, 용접 자동화율 역시 목표치의 108%를 달성했다. 이는 곧 전체 공정의 안정화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전경석 부장은 이 공을 판넬조립부 부서원들에게 돌린다.

후공정의 일을 이관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업무량에 부서원들이 불만을 가질 법도 했다.

하지만 부서원 모두가 전체 공정의 흐름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업무 이관에 흔쾌히 동의해줬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자'는 생각이 판넬조립부를 움직인 것이다.

전경석 부장은 부서원들에게 "싫은 내색 없이 잘 따라줘서 무척 고맙다"며, "삼호인 대상은 판넬조립부 전체가 함께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청하는 리더' 전경석 부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그는 팀별 생산 회의나 조회에 참석해 각 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팀원들과 1:1 고충 상담 시간을 가지며 부서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부서원들의 협동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부서원들이 그를 깊게 신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최근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전경석 부장은 이 상을 받게 해준 부서원들과 협력회사 사우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한다. 사우들이 틈틈이 몸을 풀 수 있도록 사무실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덧붙여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를 이겨내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선에 나서, 세계 1등을 자부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서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회사 전체를 위해 기꺼이 어려운 일을 맡아 공정 안정화에 기여한 전경석 부장과 판넬조립부 사우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엄마의 마음'으로 헌신한 39년

지난해 연말 현중어머니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2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 참석한 현중어머니회 정미회 회장과 황미경 부회장은 상을 받는 기쁨에 앞서, 차가워진 바람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불우이웃에 대한 걱정을 먼저 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살에 닿는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독거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들의 마음은 더욱 시립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살펴주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국민추천 포상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사회 곳곳에서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포상하는 제도다.

1977년 결성된 현중어머니회는 지난 39년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나눔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정미애 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을 더욱 정성껏 살피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알고 더 많은 이웃들을 찾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중어머니회는 매년 사랑의 일일호프와 기증품 판매전 등 자선행사를 통해 후원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 지역 불우이웃과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모범이 되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각종 서적을 선물하는 등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왔다. 지난 39년간 현중어머니회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390여 명으로, 이들에게 전달한 장학금은 3억6천450여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현중어머니회는 불우이웃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 후원, 독거어르신 세대에 위문품 전달, 정신지체 환아 특수학교 방문 봉사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현중어머니회는 엄마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지역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사우부인들의 모임이 있다.

현대미포조선의 '현미어머니회'는 2005년 결성돼 현재 60여명의 회원이 자연정화 활동,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 김장 담그기 등의 행사를 함께 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대삼호주부대학 총동창회 역시 2006년 결성 이후 12년간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 사랑의 일일호프, 연말 성금 모금, 지역 대학생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목포, 영암 지역의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전장 + 선실’
새로운 역사의 탄생

지난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전장설계부와 선실설계부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전장선실설계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조선업계에서 전례가 없던 통합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존 두 부서 간에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전장선실설계부는 족구 대회, 등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함께 하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나섰다.
그 결과, 각각의 색을 지닌 두 조직의 융합은 더 아름다운 고유의 색으로 빛나고 있다.

부서장 인사말

▲ 심학무 부장

전장선실설계부는 2016년 5월,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두 개의 부서를 통합하면서 재탄생 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선박 내 선원이 거주하는 선실 구역을 관장하고, 선박의 신경망과 같은 전기 장비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자동화, 국제 규약에 필요한 항해 장비와 통신 장비를 구축하는 설계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 부서원들은 세계 최고의 품질과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의 설계 도면을 완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저비용, 고품질, 무(無)오작 설계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부서원 모두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자랑거리

'1+1=1', 둘이 모여 하나 되기

기존의 전장설계와 선실설계는 업무 진행에 있어 협의할 사항도 많고 충돌도 많던 관계였습니다. 농담을 더해 '애증의 관계'라고 말하곤 했는데,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부서의 통합은 업무적 측면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데크하우스 내 전장, 선실 의장품 3D Cross 등에서 검토와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별화된 설계를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두 조직이 하나된 것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생일 행사 & 기념일 축전

매달 전 부서원이 모여 그 달의 생일자를 축하하고, 케이크와 간식을 나눠먹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결혼기념일 및 배우자의 생일에 축전을 발송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나누며 가족 처럼 친근한 부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모임 활동

단체 산행, 부서 내 족구리그 대항전, 친목 도모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서원 간 유대관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부서 실적 발표회

매달 부서 실적 발표회를 열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실적왕을 칭찬하고 더 나은 설계인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5S 활동

정리, 정돈, 청결 상태의 자체 점검을 생활화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장선실설계부가 하는 일은?

조명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선박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동력

"번개맨~ 나 없인 아무도 못 움직여"

전기를 생산하고 장비에 전원을 넣어줍니다.

화재

"불이야~ 나를 불러줘!"

화재를 감지해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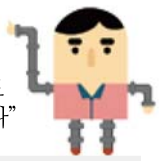
인테리어

"호텔이 부러우랴~"

선원의 노고를 풀어 줄 수 있는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듭니다.

설비

"데크 하우스에도 파이프 있다"



거주구 곳곳에 물과 공기를 공급해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항통

"난 선박의 내비게이션"

레이더, GPS 등으로 선박 운항에 꼭 필요한 시스템을 구성해줍니다.

의장

"대동맥부터 모세혈관까지"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 길을 만들어 전기를 보내 줍니다.

제어

"뒤에서... 누군가 나를 조정해요"

선박의 브레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줍니다.

“현대중공업의 재도약, 새로운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인원은 40명, 현대중공업이 채용한 인원이 전부다.
몇 년째 계속된 조선업 불황에 극심한 수주 가뭄까지 덮치면서 국내 조선사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직 현대중공업만이 장기적으로 회사 성장에 기여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지속가능성과 비전을 믿는다”

지난 1월 9일,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에서는 기분 좋은 설렘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 신입사원 40명과 현대오일뱅크에서 선발한 23명 등 총 63명의 신입사원들이 입직 교육을 받기 위해 첫 출근을 한 것이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현장을 견학하고, 권오갑 부회장의 특강을 들은 뒤 호텔현대 경주로 이동해 5일 간의 그룹 공통교육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기존에 행해지던 대졸 공채방식이 아니라, 국내 대학의 조선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여기에 현중장학생과 인턴 출신도 더해졌다.

그래서 인지 회사에 대한 신입사원들의 애정은 남달랐다.

신입사원들은 교육 중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희망’, ‘비전’, ‘미래 성장성’ 등을 현대중공업그룹의 키워드로 꼽았다. 특히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를 증명해 보이듯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신입사원들의 자세는 진지했으며, 열정과 의욕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현대중공업 신입사원 40명을 대표해 5명의 사우와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민지 사우
(24세, 서울대 조선과 졸업)

안인규 사우
(27세,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김원중 사우
(28세,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김진혁 사우
(26세, 인하대 기계공학과 졸업)

김현우 사우
(27세, 울산대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입사를 축하합니다. 처음 합격소식 들었을 때, 주위 반응은?

· 오민지 사우 '조선 경기 어렵다는데…'라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현대중공업은 곧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 안인규 사우 회사가 어려울 때 입사했지만,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우 사우 현대중공업은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직원이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김진혁 사우 많이 기뻐하고 축하해주셨으며, 입사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사랑 받는 신입사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공도 그렇고, 조선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 오민지 사우 조선업은 아무래도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그러한 편견을 깨는 데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선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선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망설임 없이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 김현우 사우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선박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현대'라는 기업에 관심도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 김원중 사우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조선업 발전과 함께 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 안인규 사우 저는 기계공학부로 입학해 최종 전공을 조선공학으로 정한 케이스인데, 선박은 공부할수록 재미있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진학해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현대중공업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 안인규 사우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업계 부동의 1위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겐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 오민지 사우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입사해 능력을 오래 펼칠 수 있는 건전한 회사를 선호합니다. 지금처럼 조선업계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회사는 현대중공업 밖에 없다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중 사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유일하게 인력 채용을 하는 회사로서, 불황을 견뎌낼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일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각오나 목표가 있다면?

· 안인규 사우 조선업이 어렵다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잘 해낸다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현대중공업의 일원으로 선배들을 도와 매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중 사우 그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활용해 회사와 산업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은 든든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 오민지 사우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 김현우 사우 회사 공장에 붙어 있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 김진혁 사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계발에 힘써 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 동료,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 서로 인생의 조언과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신입사원들의 열정 넘치는 교육현장과
입사 후기를 블로그 hi.hhi에서 만나 보세요!

현장의 안전 체온 후끈 달아오른 Day

**매서운 동(冬)장군과 함께 찾아온 살을 에는 바람에 몸이 잔뜩 움츠러든다.
거기에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까지 이어지면서 몸은 찌뿌둥하고 무겁기만 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과 1월 현장의 '안전 체온'을 올리고,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안전한 DAY' 캠페인을 실시했다.**

크리스마스 Day

'안전 산타'의 깜짝 선물

크리스마스이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안전경영부와 환경보건부 직원들은 야간작업자들을 위해 '일일 안전 산타'로 깜짝 변신했다. 빨간 옷과 턱수염 대신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안전 산타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야간작업 중인 사우들을 만났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건네며 미리 준비한 선물과 함께 안전 작업을 당부하자, 사우들의 얼굴에는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산타로 변신한 안전경영부 최욱 사우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우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벤트를 계획하게 됐다"며, "안전한 작업을 약속하는 사우들의 다짐이 산타들에게도 큰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

칭찬 쿠폰 1+1 Day

쿠폰이 두 장, 안전도 두 배!

12월 중순부터 두 달여간은 '칭찬 쿠폰 1+1' 이벤트가 마련됐다.

칭찬 쿠폰 제도는 칭찬과 격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마련된 것으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쿠폰(5000원/매)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장 업무 분위기 개선과 사우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 관리자들은 '칭찬 쿠폰 1+1 DAY' 기간 동안 위험요인 발굴과 작업장 정리정돈, 비상 상황 대응에 앞장 선 사우들에게 칭찬 쿠폰을 2장씩 전달했다.

안전경영부 조용준 대리는 "쿠폰을 받은 사우들의 기쁨이 배로 커진 만큼 안전을 대하는 책임감과 자신감도 높아진 것 같다"며, "기본과 원칙의 안전문화가 뿌리내려 더 많은 분들에게 칭찬 쿠폰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핫팩 Day

마음까지 녹이는 따뜻한 선물

매주 목요일에는 '핫팩 DAY'가 마련됐다. 꽁꽁 언 손과 몸을 녹여주는 핫팩 덕분에 작업장 전체가 후끈해 졌다.

의장5부 해동ENG에 근무하는 박찬홍 사우는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지만, 철로 된 기계를 만지다 보니 손이 계속 시리다"며, "안전요원들이 전해준 따뜻한 선물이 마음까지 훈훈하게 덥혀준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19 실천 Day

1가지 술로 1차만 9시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 동안의 수고를 격려하고,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는 '건배' 소리가 이어지면서,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아차 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안전경영부와 환경보건부는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매주 금요일 퇴근길 사우들을 대상으로 '1가지 술로, 1차만, 9시까지'라는 의미의 '119 실천 DAY' 캠페인을 운영했다.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사우들에게 적당한 음주를 권하고 피로회복제를 전달하며, 적당한 음주로 나와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119 실천'이라는 건배사가 모임 곳곳에서 등장하며, 변화된 우리 사우들의 안전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숙취해소 Day

챙기자 내 안전! 챙기자 컨디션!

적은 양의 술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숙취가 남는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숙취를 이겨낼 수 있도록 12월 23일과 30일, 1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숙취해소 DAY' 이벤트를 진행했다.

안전요원들은 현장에서 작업 중인 사우들에게 피로회복제 등을 전달하며, 음주 작업의 위험성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순간의 방심이나 집중력 저하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작업을 위한 사우들의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사우들은 안전요원과 스트레칭을 함께 하며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건강한 정신으로 작업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전혜린 사원이 공사지원부 지원2팀에게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평소 말하지 못했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작은 선물과 함께 배달하는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동료, 가족,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사우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hi에서 만나 보세요!

다섯살 꼬마가 숙녀가 될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무한한 애정을 주는 어버이의 마음일 것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종합설계부의 전혜린 사원(26세)은 고마운 아버지가 30명 더 계신다며 자랑을 한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넘치는 사랑을 보내준 아버지의 팀 동료들이 전혜린 사우에게는 가족과 다름없단다.

늘 받기만 했던 조카의 보답

현대삼호중공업 종합설계부에 근무 중인 전혜린 사원과 공사지원부 T/P과 지원2팀의 팀장인 전강표 기원(54세)이 부녀지간이라는 사실은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다. 또렷한 이목구비며, 살가운 성격까지 마치 붕어빵 틀에 찍은 듯 닮았기 때문이다.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며 사보편집실의 문을 두드린 전혜린 사원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빠네 팀은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 팀 행사에 종종 참여하면서 팀원 분들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지원2팀 팀원들은 전혜린 사우를 딸처럼, 조카처럼 여기며 아낌없는 애정을 쏟았다.

맛좋은 음식이 생기면 집에 챙겨 보내고, 장난감이며 학용품이며 잔뜩 사주면서 남부럽지 않게 크길 응원해줬다고 한다.

특히 공사지원부의 김 황 대리(32세)는 수능을 앞둔 전혜린 사우에게 정성 담은 편지를 주며 좋은 성적을 기원하기도 했다.

꼬마였던 조카가 같은 일터에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원2팀은 누구보다도 반가워 하고 축하해줬다고 한다.

아빠만큼이나 든든한 서른명의 삼촌들이 언제든 곁에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전혜린 사우도 든든하다.

딱히 예쁜 짓도 안한 것 같고, 제대로 잘 해드린 것 하나 없는데 조건 없이 과분한 사랑을 주는 삼촌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한다.

"스무 해 넘는 시간을 받기만 했으니까,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늘 고생하시는 지원2팀 팀원 분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드리고 싶어요."

예쁜 마음의 전혜린 사우는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치킨을 양손 가득 들고 지원2팀 사무실로 향했다.

"혜린이가 준 거라 더 맛있네!"

"삼촌들! 제가 오늘 치킨 쏩니다!"

회의가 소집된 줄로만 알았던 지원2팀 팀원들은 풍겨오는 치킨 냄새와 발랄한 전혜린 사우의 목소리에 놀란 눈이다.

어리둥절한 팀원들은 선물의 의미를 듣고는 호탕하게 웃어댄다. 서로 장난도 치고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오래 이어온 인연인지 가늠이 된다.

"닭다리부터 뜯지요?"

성격 급한 황윤호 반장(45세)은 치킨 포장을 뜯으며, 혜린 사우의 어릴 적 에피소드를 쏟아 낸다. 점심식사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언제 밥을 먹었냐는 듯 참 맛있게도 먹는다.

어떤 이는 "우리 조카가 주는 치킨이라 그런지 유난히 더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든다.

묵묵히 웃기만 하던 나정만 직장(52세)은 "자그맣던 녀석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했는데, 이렇게 삼촌들 간식까지 챙겨주니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몰라요"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인다.

전혜린 사우는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팀 사무실을 가득 메운 치킨 냄새에 기분까지도 풍족해진 듯하다.

삼촌들의 부름에 낯가림도 없이 뒤뚱거리며 걸음마하던 작은 아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뽐내며 재롱부리던 꼬마, 몰라보게 쑥쑥 커서 어느새 어른이 된 소녀. 작을 때나 클 때나,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전혜린 사우는 지원2팀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동안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날의 깜짝 선물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팀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하는 것인데,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삼촌들을 생각해줬다는 게 기특하고 예쁘네요."

고맙다는 말로 가득 찬 하루, 이 날은 그 어느 날보다 따뜻했다.

불경기에도 안정적 수익 창출 서비스 산업 진출로 위기 돌파구 찾는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완성된 선박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나면 조선소의 임무는 끝나지만, 선박의 진짜 운명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바다로 나간 선박은 약 25년의 긴 시간 동안 오대양을 누비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선소의 일반적인 부서와는 달리, 선박이 바다로 나간 뒤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선박의 인도 후부터 폐선까지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엔지니어링 기반 서비스 전문 회사'다.

서비스 업무 통합으로 업무 유연성 향상

국제 경기와 해상 물동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은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불경기에도 선박의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필요한 만큼 애프터 마켓(After Market)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금까지 고객사에 인도한 선박은 총 3천200여 척. 1995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내 조선AS부가 설립된 이후,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각 사별로 인도된 선박들에 대한 A/S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고객과의 소통 창구가 나눠져 있다 보니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웠고,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 A/S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져 수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월, 각 사별로 분리돼 있던 선박 A/S 조직을 통합한 '그룹선박AS센터'가 출범했다.

업무 창구가 단일화되자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한 목소리로 응대할 수 있게 됐고, 각 사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고객 불만 사례를 공유하면서 업무의 능률도 높아졌다. 고객들의 요구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그룹선박AS센터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전기전자사업본부의 서비스 조직을 통합한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애프터 마켓 공략에 나서고 있다.

서비스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신조(新造) 사업의 돌파구를 찾고,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종합적 서비스로 경쟁사와 차별화

전 세계 조선사 중에 서비스 전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최초다.

특히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의 오랜 사업 경험을 살려 선박뿐만 아니라, 박용엔진과 전장품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사들과 차별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독자 브랜드인 힘센엔진과 선박용 대형엔진을 비롯해 각종 전장품, 조선 기자재 등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선수 및 프로펠러의 형태를 개조하거나 하이핀(Hi-FIN) 장착 등을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구조 해석, 모형 시험, 진동 계측 등을 대행하는 유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환경 규제와 국제 룰(Rule) 변경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한다.

최근에는 올해 9월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2022년까지 운항되는 모든 선박에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선박 중 5만여척이 신규 설치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조한 선박은 1천900여척으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하이밸러스트(Hi-Ballast), 에코밸러스트(EcoBallast) 등 자체 개발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가지고 있어, 본격적인 협약이 발효되면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운항솔루션, 스마트십 등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역시 중요한 사업 영역 중 하나다.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운항 항로를 제시하고, 부품의 수명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이고 똑똑한 유지보수에 나서는 것으로, 향후 서비스 시장의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제조회사인 GE는 전체 매출의 31%를 서비스 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바르질라 역시 41%의 매출이 서비스부문에서 나온다.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출범이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된다.

정교한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로 믿고 맡기는 '든든한 동반자'

선박 한 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 백, 수 천 개의 부품이 모여야 한다. 그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만들기가 유독 까다로운 것이 있기 마련이다. 전남 영암에는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특수선체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 (주)마린텍(대표 김용환·주평노)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자랑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

정밀한 기술로 고난도 제품 생산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위치한 선박 구조물 제조 회사 마린텍(대표 김용환·주평노)의 공장은 종종 긴장감으로 가득 찬다. 전문 인력의 정교한 기술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고난도 기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2006년 충무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눈에 띄는 성장을 이어온 마린텍은 선체 상부 갑판을 덮는 해치 커버(Hatch Cover)와 LPG운반선의 가스탱크, LNG운반선의 화물창 보냉 시스템 등 특수 선체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다.

해치 커버와 특수 선체 구조물은 일반적인 선박 건조보다 훨씬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

마린텍의 대표 상품인 해치 커버는 화물창의 덮개로 해수나 유수 등이 화물창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화물창 내의 화물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덮개 위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적재량을 늘려주기도 한다.

이 해치 커버는 선박에 들어가는 일반 블록과는 달리 주판의 두

께가 10mm 이하로 매우 얇기 때문에 500개가 넘는 작은 부품을 용접 조립하고 나면 변형이 심해져 품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마린텍이 생산하고 있는 LNG운반선 화물창 보냉 시스템 역시 최첨단 기술을 요한다. 영하 163도 극저온 상태의 액화 천연가스를 예측 불가의 외부 환경과 장시간 운항이라는 조건 속에서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수 제작된 고밀도 단열 판넬을 선체에 밀착 고정하는 정밀 조립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전문 기술 인력이 투입돼야만 한다.

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 집중

좋은 제품을 차질 없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조 시설, 전문 인력'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마린텍은 고난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고의 기술력과 전용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린텍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에 더해,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2013년에는 산학협력을 선도하며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훈련된 인력 상당수가 현재 생산 현장에 투입됐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일등공신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두터운 신뢰로 협력관계 이어와

2008년, 현대삼호중공업을 시작으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의 인연을 이어온 마린텍은 고품질 제품을 정확한 날짜에 공급하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09년부터 해치 커버 등의 제품 2만972톤과 16척의 LNG운반선에 탑재된 화물창 보냉 시스템을 공급받았다. 마린텍 대불 공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현대삼호중공업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만896톤의 선박 구성품과 LNG운반선 12척의 화물창 보냉 시스템을 거래했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2012년부터 675톤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마린텍은 2013년 현대중공업 우수 협력회사에 선정됐으며, 2014년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최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파트너임을 인정받았다.

마린텍에서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은 선박의 핵심 구성품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곧 선박의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탄탄한 기술력에 대한 신뢰 없이는 거래를 이어가기 어렵다.

현대중공업그룹과 10년 동안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온 데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마린텍의 노력이 깔려 있다.

마린텍의 김용환 대표는 "고품질 제품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협력업체와 상생하며, 임직원은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갖는 건강한 기업이 되고 싶다. 나아가 국가 경제와 한국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힘쓰고, 지금보다 더 나은 품질을 위해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는 마린텍의 도전하는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춘다.

찬란한 색을 품은 나라, 인도와 만나다

12억6천만명이 살고 있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한다.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다녀온 사람은 없다는 인도의 매력을 들여다봤다.

인도에서 가능성을 찾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해양, 전기전자, 건설장비 등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하고 있다.

인도와의 인연은 현대중공업이 1981년 인도 '시스코'사로부터 3만7천톤급 벌크 캐리어 1척을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은 지금까지 총 62척의 선박을 건조해 인도했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하기도 했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문은 1982년 뭄바이 해상 플랫폼 공사를 시작으로, 원유생산설비의 신조(新造) 및 개조 등 인도에서 총 30여건의 해양공사를 수행했다.

또한 전기전자사업본부는 2000년 국내 최초로 인도의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Spaceage Switchgears)'사와 저압차단기 기술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다.

2008년에는 현대중공업이 국내 업계 최초로 인도 '푸네'시에 건설장비 법인과 공장을 설립했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는 지난해 인도 시장점유율 2위를 달성했을 만큼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색 빛깔의 신비한 나라

인도의 가장 오래된 도시인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은 인도인들의 생명줄이자 믿음의 뿌리다. '성스러운 강'인 이곳에서는 생(生)과 사(死)를 동시에 마주할 수 있다.

저승과 이승에서의 죄를 씻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힌두교 신자들이 강물에 몸을 담그고, 그 바로 옆에서는 죽은 이를 화장해 그 재를 강에 뿌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 행해진다. 길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곳이라 믿기 때문이다.

인도의 또 다른 명소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눈물'이라 칭송 받는 타지마할이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여인 뭄타지 마할 왕비를 기리기 위해 만든 무덤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얀 대리석 건물과 주변의 정원이 어우러진 타지마할은 죽은 아내를 위한 왕의 애틋한 사랑이 더해져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인도에는 다양한 '색(色)'을 품은 도시들이 있다.

'자이푸르'는 온통 분홍빛을 띠어 '핑크 시티'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도시의 상징인 '바람의 궁전' 하와마할은 분홍색 외벽에 뚫린 수많은 창문으로 유명한데, 외출을 할 수 없었던 왕가 여성들이 유일하게 바깥세상을 볼 수 있었던 통로였다고 한다.

마을 전체가 파란 색으로 물든 도시 '조드푸르'는 영화 '다크나이트'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122미터 높이의 사암 언덕지대 위 메헤랑가드 성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마치 바다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화이트 시티로 불리는 '우다이푸르'도 있는데, 화강암과 대리석 건물이 많다.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이곳은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는 곳이다.

인도에서 보내온 이야기

가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 상상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인도의 이야기를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 인도법인에서 근무하는 강필성 과장(35세)에게 들어보았다.

독특하다고 느낀 인도만의 문화가 있나요?

인도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입니다.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는데요. 인도의 노숙자들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아주는 노숙자 덕분에 돈을 주는 사람이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은 돈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멈춰선 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보란 듯이 돈을 요구합니다.

노숙자가 돈을 요구할 때는 약 10루피(한화 175원) 이하의 금액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저는 인도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이가 많은 노숙자 할머니에게 100루피를 주었다가 수십 명의 노숙인이 차를 둘러싸고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는 영국의 차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즐겨 마시는 '짜이'는 우유와 설탕을 듬뿍 넣어 우려낸 홍차인데요. 인도 수질에 익숙하지 않은 주재원들은 짜이를 마시고 고생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한 번은 고객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돌아가는 길이 걱정되어 일부러 차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을 알 리 없는 고객이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바람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로 돌아가는 도로 위에서 속이 좋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도로 옆 넓은 들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질 뻔한 순간, 다행히 주유소를 발견했습니다. 인도에서 현지 음식을 먹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여행을 계획하는 사우들에게 특별한 장소나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델리–아그라–자이푸르'는 인도에 왔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입니다.

세계 10대 건축물로 꼽히는 아그라의 타지마할, 코끼리를 타고 절벽길을 따라 성벽을 오르는 자이푸르 암베르 포트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멋진 장관을 선사합니다.

인도 음식 중 한국 관광객이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탄두리(화덕구이) 치킨과 대하, 치킨 마끄니라고 불리는 버터치킨 커리 등입니다.

디저트 문화도 발달했는데, 이 중 국민 디저트로 불리는 '굴랍자문'은 꼭 맛보아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향신료 때문에 음식을 먹기 힘들다면, 향이 강한 고수풀(Coriander)을 빼달라는 말을 기억해두었다가 주문 시에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체육관 · 육상건조장 준공으로 새로운 랜드마크 우뚝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2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2007.2

▲ 쿠바에 설치된 이동식 발전설비 (PPS)와 PPS가 도안된 쿠바화폐

현대중공업 사보 2007년 2월호에는 쿠바의 10페소 지폐에 현대중공업의 PPS(이동식 발전설비)가 실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PPS는 디젤엔진 등 발전기 구동에 필요한 설비들을 컨테이너에 담은 소규모 패지키형 발전소로, 쿠바의 전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현대중공업 PPS의 쿠바 화폐 도안 소식은 당시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며 화제가 됐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민을 돕기 위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폭락했던 삼치를 대량으로 구매해 사우들에게 중식 반찬으로 제공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모습이 한결 같다.

▲ 현대삼호중공업 플로팅도크 강재절단식

10년 전,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육상건조장 조성이 한창이었다. 2월 1일에 1천 200톤 골리앗크레인의 강재절단식이, 2월 5일에는 플로팅도크의 강재절단식이 진행됐다.

2007년 완공된 현대삼호의 육상건조장은 세계 최초로 자가구동 로드아웃 시스템(Load-out system)을 갖추는 등 최고의 기술력으로 지금까지도 원활한 공정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1997.2

▲ 1997년 2월 현대중공업 사보

1997년 2월 현대중공업 사보는 남편을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중 100명의 사우 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사우 부인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할 때 남편이 가장 존경스럽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남편이 싫어진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랑을 확인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내에게 사랑 받는 남편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달 노르웨이 PGS사로부터 FPSO(부유식 원유 생산 및 저장설비)에 대한 수주계약을 맺었다. 이 선박은 훗날 현대미포조선 신조 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인도한 선박이라 의미가 있었다.

▲ 현대미포조선과 노르웨이 PGS사가 체결한 FPSO 계약식

1987.2

▲ 현대중공업 1987년 2월호 사보

1987년 2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1986년도 회사 방문객과 관련된 통계 기사가 실렸다.

사보에 따르면 1986년 일년간 현대중공업을 다녀간 방문객은 무려 87만1천여명이었다.

이는 당시 울산시민의 1.5배에 이르는 인원으로, 이 중 외국인은 1만5천여명이었다. 특히 6월 4일에는 하루에만 1만3천 300여명이 현대중공업을 찾았다고 한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달 원활한 선박 수리작업을 위해 2도크와 3도크 사이에 집 크레인 2기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선박의 대기 시간도 단축돼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 1987년 현대미포조선 2·3도크 사이에 설치된 집크레인의 모습

1977.2

1977년 2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정주영 창업자의 특별훈시가 실렸다. 정주영 창업자는 향후 2년간 세계 조선시장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모두가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회사가 지금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달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사내 체육관 완공 소식도 실렸다. 지금도 현대중공업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주무대인 사내 체육관은 1977년 1월에 준공돼 올해로 40년을 맞았다.

▲ 1977년 준공 당시의 현대중공업 사내 체육관

바다 생물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라!**

바다에는 지구 생물체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생명과학분과는
이미 10년 전에 다가오는 미래를
'바이오 경제(Bio-Economy)'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해양 자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양 생물체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활용하는
해양바이오(Marine Biotechnology)가
미래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다.

Marine Biotechnology

선조들도 사랑한 해조류

바다에 있는 대표적인 자원 중 하나는 해조류다. 해조류는 현미경 없이도 관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대형 해조류와 미세조류로 분류되고, 광합성 색소 색깔에 따라 갈(褐)조류, 홍(紅)조류, 녹(綠)조류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바닥에 붙어사는지, 물에 떠다니며 사는지에 따라 저서성(底棲性)과 부유성(浮游性)으로 나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 미역, 다시마는 모두 대형 해조류이면서, 저서성 조류과에 속하고, 각각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에 해당한다.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바다의 잡초'로 취급해온 반면,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식용으로 즐기거나, 약초로 사용해왔다.

신라 왕족은 김을 폐백품목으로 주고받았으며, 고려 사람들은 출산한 고래가 미역을 먹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다고 한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미역이 열과 답답함을 풀어주고, 중국의 대표적인 의학서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김이 구토와 설사를 낫게 해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해조류는 건강에 좋은 각종 효능을 가지고 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물에 불리면 나오는 점액질은 '알긴산'이라는 당(糖)으로,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유해 중금속과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 의약품의 재료로도 이용된다.

또한 미역귀 등 갈조류에서 추출하는 '후코이단' 역시 혈행(血行) 개선, 항암, 항알레르기, 항산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의약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김 등 홍조류에 풍부한 '카리기난'은 식품, 화장품의 점도증강제로 사용된다.

고갈 걱정 없는 것이 큰 장점

생물체에서 얻어지는 '바이오연료'는 고갈될 염려가 없고,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추출은 무리한 경작지 확대로 열대우림을 파괴해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는 고갈 걱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매년 지구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90%는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할 만큼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조류는 번식력이 좋아 온도만 적절하다면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높은 비용과 에너지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쉐브론(Chevron)이나 엑슨모빌(Exxon Mobil)과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메이저들이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연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이 높게는 연평균 10~12%, 적게는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년 약 12억달러 수준이었던 해양바이오 시장은 2018년 약 16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리적 이점 살려 해양바이오 연구 활발

우리나라 정부도 해양바이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다. 현재 국내·외의 해양생명자원 다수를 확보해 유전체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홍합에서 의료용 생체 접착제를, 말미잘에서 미세 실크 섬유를, 해조류에서 창상(創傷)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연구에 들어갔다. 연료 추출에 적합한 미세조류 3종을 개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바이오수소를 생산해내는 해양미생물인 초고온 고세균(古細菌)의 대사경로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수소 생산성을 확보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 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해 해양바이오 자원 개발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수한 인적자원과 산업기술을 활용한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 속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참고 도서 바다 이야기(한국해양수산개발원 著)

강스파이크 매력에 흠뻑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탁구, 농구, 배드민턴…. 쉬우면서도 특유의 재미가 있는 운동은 생활체육인들에게 사랑받기 마련이다.
인기 생활체육 종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배구다.
현대삼호중공업에도 배구의 재미에 중독된 이들이 있다.
손목이 온통 멍투성이가 되도록 배구를 배웠던 이들은, 시간이 지나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는 배구인이 됐다.**

외적 한계 극복법은 '꾸준한 열정'

15년 전, 국민 스포츠 배구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모였다. 프로 선수처럼 길쭉한 팔다리나 탄탄한 몸매를 지니진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국가대표인 사람들이 배구동호회를 결성한 것이다.

사우 부인을 비롯해 20여명으로 구성된 현대삼호중공업 배구동호회는 매주 모여 꾸준한 연습을 해오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의 체육관을 빌려 진행되는 연습은 하루 2~3시간씩 쉼 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15년을 쉬지 않고 단련해온 이들은 매년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서 빠짐없이 순위권에 든다. 지난해에도 영암 배구협회장배대회 우승, 함평 비치발리볼대회 준우승, 해남 해림배대회 3등, 경남 합천배구대회 3등의 성적을 냈다.

경쟁 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연령대도 높고, 체격 조건이 우수한 사람도 드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배구동호회에는 학창시절 선수였던 이가 몇 명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왔기에 가능한 결과다. 또한 초창기부터 주욱 함께 해온 회원들 간의 팀워크도 꾸준히 순위권에 드는 비결 중 하나다.

충분히 훌륭한 성적임에도 배구동호회는 지금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회장 김기범 조장(46세)은 "10년 전에 비해 회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져, 체력적으로 버거움을 느끼곤 한다. 젊은 친구들을 영입하고 기존 회원들의 체력을 단련해 이 문제를 꼭 극복하고 싶다"며 약점 극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전라남도 대회 이상 큰 규모의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한다.

'어울림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지역에서의 최정상을 노리는 이들이지만, 수상 결과보다는 배구를 즐기고 회원들 간에 허물없이 어울리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공을 만지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왕초보 회원이 가입을 해도 즐길 수 있도록 기초부터 정성껏 가르쳐준다고 한다.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낸다. 함평 대회 때는 1박2일 야유회를 겸해 가족들과 동행하기도 했다.

또한 1년에 한 두 번은 회사 인근에서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운동과의 사랑에 빠진 이들 대부분이 그렇듯, 배구동호회 회원들 역시 배구의 매력에 중독돼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배구는 팀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팀워크가 중요한 종목이라고 한다.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3단 연결 과정이 있는데, 정확한 리시브와 이를 연결하는 2단 토스가 없다면 스파이크를 통한 득점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네트 앞에 서 있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21점이라는 정해진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 득점수를 채워가는 재미도 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짜릿한 역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배구공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퇴근 시간이 빨라진 만큼 연습 시간이 늘어났다. 지금껏 영암군 내 최강팀이었던 현대삼호중공업 배구동호회가 늘어난 연습 시간을 활용해 2017년에는 전라남도 내 1위 팀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불태운다.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힘찬 응원을 보내주면 어떨까.

배구동호회 가입 안내

현대삼호중공업 배구동호회는 신입 회원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회장 김기범 010-6661-3853
총무 백성훈 010-7105-3333

언제 어디서나 하루 20분, 영어 완전 정복!

한마음회관 '원어민 화상 영어'

대상 초등학생 ~ 성인
시간 월~금 오전 6시 ~ 밤 11시 30분
(수업 당 20분, 요일 및 시간 수강생 선택)
수강료 주 5회 12만5천원/1개월, 주 3회 9만원/1개월
문의 한마음회관 ☎052-209-7900/7927

외국인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바쁜 일상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한마음회관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생들은 수업 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 받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업의 방향과 교재를 결정한다. 수강 목적에 따라 생활 회화, 비즈니스 영어, 토론 등 다양한 수업이 준비돼 있다.

강사는 필리핀 4년제 대학에서 영어와 교육학을 전공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다.

수업은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원어민 선생님은 발음, 문법, 어휘 등 수강생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통해 출결, 난이도, 교재 등에 대한 상담 및 관리도 받을 수 있다.

수업 후에는 리포트를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녹화된 수업을 다시 보는 것도 가능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원어민 화상영어'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스케줄에 맞춰 수업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자기계발을 하려는 직장인 수강생이 꾸준히 찾고 있는 이유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어, 어린 아이들도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들을 수 있다. 또 원어민 선생님과 수다를 떨듯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진다고 한다.

매 수업은 20분간 진행된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소 단 1분도 영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20분간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은 매일 영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늘지 않는 영어가 고민이라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한마음회관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의 문을 두드려 보자. 올 여름에는 이국의 하늘 아래서 외국인 친구들과 서슴없이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펠러에 희망을 담아 힘차게 전진!

한 조각조차 소중히 느껴지는 겨울햇볕이 잠시 구름에 가렸다 다시 땅 위를 비춘다. 푸른 동해 바다와 울산대교를 지나 프로펠러 조형물 위에서 순간 '반짝'하고 금빛으로 빛난다.

1월 6일, 울산대교 종점 교통섬 중앙에서 '프로펠러 상징조형물'의 제막식이 열렸다.

겨울 바람이 제법 매서운 날이었지만 동구의 새로운 상징물을 보기 위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리에 나왔다. 주민들은 동구청에서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린 손을 녹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베일 속의 프로펠러를 응시했다.

'둥둥둥!' 커다란 북소리가 제막식의 시작을 알렸다.

울산대교의 끝이자 동구로 들어서는 첫 지점에 설치된 프로펠러 상징조형물은 실제 선박에 사용되는 박용프로펠러로,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프로펠러생산부에서 직접 제작했다. 청동합금 재질에 무게 16.3톤, 직경 6미터로, 4만5천톤급 화학제품운반선에 장착되는 모델이다.

우리 사우들이 직접 만들어낸 작품이기에 더욱 특별한 상징물이다.

이번에 설치된 프로펠러에는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 도시를 만들어낸 동구 주민들의 자긍심과 함께 조선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이겨내고, 다시 한 번 좋은 시절이 찾아오길 바라는 염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평생을 동구에서 살았다는 서귀련 씨(63세, 전하동)는 "그동안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 해주는 현대중공업이 있어 잘 살아왔는데, 요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며, "저 프로펠러 조형물이 다시 활기찬 동구를 만드는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산타워가 서울을, 에펠탑이 파리를, 타임스퀘어가 뉴욕을 상징하듯, 금빛으로 반짝이는 프로펠러는 조선산업의 메카 동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더불어 프로펠러의 힘찬 회전력처럼 씩씩하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상징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달아 달아 둥근 달아,
간절한 소망 들어다오

'십오야(十五夜) 밝은 둥근달이 둥실둥실 떠오르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 거리네'
보름달 두둥실 떠오르는 정월대보름이 코앞이다. 흥겨운 노래자락 흥얼거리며 정월대보름을 제대로 즐겨 보자.

첫 보름달 뜨면 '마을의 명절'

올해 2월 11일은 정월대보름이다. 초승달에서 점점 차오른 달이 이내 만월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황홀한 달빛을 쏟아낸다.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음력 1월 15일은 상원절(上元節), 오기일 또는 달도라고도 부른다.

반짝이는 샛별보다 1천500배나 더 밝은 보름달을 보며,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고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다. 절기상으로는 추운 겨울의 음기를 떨쳐내고 봄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월대보름은 쟁반같이 둥근 대보름의 밝은 달빛이 어둠과 질병, 재액을 밀어내주길 바라고, 농사가 잘되고 고기가 잘 잡히기를 기원하며 '동제'를 지내는데서 유래됐다.

지금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날이 되었지만 예부터 '이 기간 중에는 빚 독촉도 하지 않는다', '설은 나가서 쇠도 보름은 집에서 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이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달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고, 첫 보름달이 뜨는 때가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기에 정월을 대명절로 여겼다.

설날이 집안의 명절이었다면 정월대보름은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마을의 명절로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데 모여 다양한 풍속놀이를 즐기는 축제였다.

한 해의 나쁜 액을 멀리 보내는 의미로 연줄을 끊어 멀리 날려 보내거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다양한 음식도 해먹었다. 크고 둥근 달이 떠오르는 밤이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며 농부는 풍년을, 총각은 장가들기를, 처녀는 시집 가기를, 새댁은 자녀 출산을, 노인은 장수하기를 빌었다.

부럼 깨물고 쥐불 돌리며 액운 쫓아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정월대보름 놀이 문화에는 달맞이, 줄다리기, 놋다리 밟기, 달집태우기, 더위팔기, 쥐불놀이 등이 있다.

이른 아침 친구를 찾아가 친구의 이름을 부른 후 "내 더위 사가라"고 말하면서 더위를 팔았다. 마을 풍물패가 집집마다 마당을 돌며

지신을 밟아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풍작, 가정의 다복을 빌었다. 연을 날리고 탈놀이를 하고 차전놀이를 하다 밤이 되면 깡통에 불씨를 넣어 돌렸다. 논둑과 밭둑에 쥐불을 놓아 쥐와 해충을 제거하고 논밭에 숨어 웅크린 잡귀들도 쫓아냈다.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는 데우지 않은 찬 귀밝이술을 마셨다. 이 한 잔 술에 눈과 귀가 밝아지고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믿어 온 가족이 모여 웃어른부터 귀밝이술을 마셨다.

또 자신의 나이만큼 부럼을 깨물어 견과류의 껍질이 깨지는 '딱' 소리로 액운을 내쫓고, 부스럼을 예방하며, 이를 튼튼하게 했다.

식사로는 청, 적, 황, 백, 흑색을 띄는 다섯 가지 곡물로 오곡밥을 지었다. 찹쌀, 찰수수, 팥, 차조, 콩 등을 섞어 만든 오곡밥은 인간의 몸에 있는 다섯 가지 장기에 영양을 골고루 주고, 한 해 동안 건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성이 다른 세 집 이상이 서로 밥을 나눠 먹으면 더욱 건강해진다고 해서 이웃 간에 오곡밥을 나눠먹거나, 구운 김이나 배춧잎, 토란잎 등에 오곡밥을 싸서 먹는 복쌈을 먹기도 했다.

할 놀이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았던 정월 대보름이지만 금기사항도 있었다. 아침에 마당을 청소하면 한 해의 복이 쓸려나가고, 비린 음식을 먹으면 여름에 파리가 꼬이고 부스럼이 생긴다고 믿었다.

마을 공동체 문화가 사라짐에 따라 지금은 정월대보름을 즐기는 문화 대부분이 사라졌다. 오곡 찰밥과 부럼을 챙겨먹는 정도만 남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월대보름을 제대로 즐길 방법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찾아가면 된다.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쉽다면, 올해 정월대보름엔 아이와 함께 가까운 지역의 축제를 찾아가 함께 즐겨 보자.

취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정월 대보름을 즐길 수 있는 지역별 명소

순천 낙안읍성

조선시대 읍성 중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된 곳 중 하나인 낙안읍성. 이곳에서는 액막이굿을 시작으로 장승 세우기, 당산제, 민속놀이, 전통공연 등이 펼쳐지는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큰잔치'가 개최된다.

주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세시 풍속을 되살리는 민속놀이를 재현하는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시각에 맞춰 소원지를 달집에 걸고 태워 모두의 무사안녕과 새해의 복을 기원한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

강원 삼척시 엑스포광장에서 열리는 전통민속문화축제인 정월대보름제에서는 「기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망월놀이」, 「강원 우리 술 선발제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특히 1662년 삼척 부사 허목이 둑 만드는 일에 마을 주민을 참여시키려고 만든 놀이인 기줄(게줄)다리기는 삼척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행사이다.

제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상들의 불놀이가 현대적 축제로 계승되고 있는 제주 들불축제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새별오름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횃불대행진, 달집태우기, 오름불놓기, 마상마예공연 등이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 특히 52만여㎡에 이르는 드넓은 새별오름을 뜨겁게 불태우는 오름불놓기는 축제의 절정이다.

울산 대보름 축제

울산 곳곳에서도 정월대보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주전해변을 비롯해, 태화강 둔치와, 남산 은월봉 정상 등에서 각각 펼쳐지는 이들 축제는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시작으로, 장구춤,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달집살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파도소리를 자장가 삼고, 아침 해가 알람이 되는 곳

**맛있는 음식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더 이상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됐다.
지난달 울산의 대표 관광 명소인 대왕암공원에
오토캠핑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울산의 새로운 명소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의 구석구석을
블로그 hi.hhi에서 만나 보세요!

최신 시설 갖춘 울산 최대 규모 캠핑장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캠핑장에 텐트를 친다. 아이들도 조그마한 손으로 열심히 엄마 아빠를 돕는다. 가족이 함께 만든 집이라 그런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텐트 안으로 침낭, 식기 등을 나르며 어디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알차게 꾸밀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하는 시간들이 즐겁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약 4천평(1만3천47㎡) 규모의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은 카라반 17대, 캠핑장 36면 등 총 53면의 캠핑 시설을 갖춘 울산 최대 규모의 오토캠핑장이다.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부대시설은 최신식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으며, 온수가 펑펑 나와 겨울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캠핑장 전 구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캐라반의 문을 열고 불도 끄는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널찍한 캠핑장에는 각 면마다 수도와 원목사각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주차 공간도 충분하고, 화장실과 샤워실, 세척실도 가까워 편리하다.

캠핑장을 지나면 카라반 광장이 펼쳐진다. 6인이 정원인 카라반은 일반 카라반과 원목 캐빈(cabin)형 카라반 두 종류가 있다. 원목 캐빈형 카라반은 일반 카라반에 비해 2평정도 넓으며, 복층 구조의 다락방도 갖추고 있다.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카라반의 피톤치드 향이 기분 좋게 코를 자극하고, 고급 소재의 침구류가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포트, 전기밥솥, 식탁, 텔레비전, 드라이기 등 각종 편의용품도 갖추고 있어 불편함 없이 하루를 즐길 수 있다.

대왕암공원에 오토캠핑장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예약을 했다는 이철민 씨(40세, 울산 중구)는 "캠핑을 많이 해봤지만 대왕암 오토캠핑장처럼 넓은 바다를 보며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해송 사이의 일몰과 잠자리에서 보는 일출

짐 정리가 끝났다면 대왕암공원을 여유롭게 둘러보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마주보고 있는 새파란 동해바다, 캠핑장 뒤편의 측백나무 미로원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자주 보던 풍경이지만 오늘은 이 곳이 내집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

해송(海松)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도 장관이니 일몰 시간을 기억해 놓자.

대왕암공원 캠핑장의 가장 큰 매력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자리에서 바로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막 잠에서 깬 눈에 비치는 새빨간 아침 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오전에는 슬도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를 추천한다. 바다가 들려주는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짝 땀이 날 정도로 기분 좋게 걷다 보면 어느새 슬도에 도착한다. 슬도 끝 소리체험관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울산의 각종 소리들이 설명과 함께 잘 전시돼 있다.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은 사전 예약제 및 선불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약자를 선정한다.

마니아를 중심으로 벌써 입소문이 나면서 평일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자.

파도소리에 잠들었다가 아침 해에 눈을 뜨는, 색다른 1박 2일을 대왕암 오토캠핑장에서 보내 보자.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이용료 캐라반 : 비수기 11~13만원, 성수기 15만원
캠핑장 : 비수기 2만~2만5천원,
성수기 3만원 (울산 시민 20% 할인)

입장 시간 오후 2시 **퇴장 시간** 오전 11시

예약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http://daewangam.donggu.ulsan.kr/camping)

문의 ☎052-209-4530

모든 향기에는 이야기가 있다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와 바로 연결돼 있다. 때문에 인간의 오감 중 가장 개인적인 감각이며, 특정한 냄새는 과거의 특별한 다시 감정을 일으키거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저마다의 향기가 가진 사연들을 풀어가며 나만의 이야기를 향수병에 봉인할 수 있는 곳, 향기체험숍 '프루스트(PROUST)'를 다녀왔다.

이야기가 담긴 '나만의 향기'

'맑고 순수한 향', '포근하고 따뜻한 향', '투명하고 시원한 향', '향긋하고 달콤한 향', '상큼하고 발랄한 향', '편안하고 세련된 향', '다크하고 심플한 향'.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일곱 개의 향수병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각 향수병 뒤에는 그 향기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진들이 놓여 있다.

가만히 냄새를 맡아 보니 코끝에 스미는 자극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과연 이름대로구나.'

이야기가 있는 향기체험숍 프루스트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나만의 향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홍차와 마들렌의 향기를 통해 옛 기억을 떠올리는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마르셀 프루스트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서울 익선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그 곳에서 교육을 받은 정보희 조향사가 지난해 11월 울산 삼산동에 분점을 열었다.

새하얗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프루스트 울산점은 고객들이 온전히 향기에만 집중해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도록 장식이나 소품 배치를 최대한 절제했다고 한다.

정보희 조향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따라 향수 만들기를 시작했다.
기본이 되는 7가지의 베이스 향을 맡아 보고 한두 가지를 베이스를 선택한 뒤, 그밖의 30여가지 향료 중에서 어울릴만한 추가 향료를 섞는다.
이때 저울 위에서 향료를 스포이트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정확한 무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두 방울의 차이로 전혀 다른 향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보통 4~5가지의 향료를 조합해 만드는 향수는 체온의 변화에 따라 발향되는 냄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향지가 아닌 피부에 테스트 해보는 것이 좋다.
완성된 향기에 직접 이름까지 붙여주면 향수 만들기 체험이 마무리된다. 예쁜 포장용기에 담아 리본도 달아주니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도 좋을 듯하다.

향유고래의 이야기를 담은 '울산향'

프루스트에서는 향수 외에도 캔들과 디퓨저 등 향을 담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홍차, 밀크티, 푸딩, 마들렌 등도 맛볼 수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향기도 자유롭게 경험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울산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래엠버향이었다.
용현향(龍涎香)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먼 바다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향유고래의 이야기를 담은 향이라고 한다.
정보희 조향사가 직접 만든 것으로, 이 향수로 얻는 수익금의 10%는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기부된다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게 느껴졌다.
체험 시간은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향수를 만들고 나서 2주 정도 숙성을 시키면 향이 더욱 부드러워진다고 한다.
비용은 향수 50ml, 캔들 130g 2개 세트 기준으로 6만5천원이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문 조향사와 함께 여러 향기를 맡아 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순간의 기억과 감정을 향기 속에 담아 간직하는 색다른 체험, 프루스트에 가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프루스트 울산점

전화 052-267-3552
위치 울산 남구 삼산로 231 센트럴자이 더테라스가든 313호

프루스트 본점

전화 02-742-3552
위치 서울 종로구 수표로 28길 17-26

종로구 익선동 한옥마을에 자리잡은 프루스트 본점은 전통한옥을 개조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멋스러움이 가득한 공간이다. 한옥지붕을 이고 있는 새하얀 벽이 눈길을 끄는 외관에, 대들보와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킨 내부 인테리어가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향수와 캔들, 디퓨저 등의 상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향기를 조합해서 자신만의 향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직접 만든 홍차와 티푸드를 맛볼 수 있는 카페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시간이 머무는 황홀한 찻집

시간은 묘한 힘을 지녔다. 과거를 간직한 공간은, 설령 그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어딘가 애틋하고 아련한 기분을 선사한다. 마치 1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한 찻집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에 꽁꽁 언 몸을 잠시 녹였다.

유럽의 성을 옮겨 놓은 듯한 곳

울산에서 경주로 향하는 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홍차전문점 애비뉴(Avenue)를 만날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느 유럽의 성에 놀러온 듯한 기분이 든다. 넓은 가게를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유럽풍 인테리어와 화려한 소품들에 마음을 뺏겨 자리를 잡고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애비뉴는 홍차전문점답게 다양한 홍차가 구비돼 있다. 세계 3대 홍차라고 불리는 다즐링과 기문, 우바 외에 이름도 생소한 수십 가지 홍차가 있어 어떤 것을 고를까 고민하게 한다. 홍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저트와 커피도 판매한다.

홍차만 주문했는데도 아기자기한 모양의 작은 디저트들이 곁들여 나온다. 섬세하고 아

애비뉴

찾아가는 길 경북 경주시 외동읍 영지안길 6
연락처 054-745-0056

름다운 식기에 차가 식는 줄도 모른다. 홍차를 입으로도 맛보고, 눈으로도 맛보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

사장 송혜정 씨(51세)는 "홍차의 본고장인 영국의 차(Tea) 문화를 고스란히 옮겨오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찻잔을 데우는 것부터 차를 우리는 법과 식기, 소품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덕분인지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영국의 왕족이 된듯 황홀한 기분이다.

스피커, 영사기 등 다양한 소장품 전시

여성들이 가구와 찻잔, 소품에 마음을 빼앗긴 사이, 남성들은 영사기, 스피커, 오르골 등이 전시된 공간에 발이 묶인다.

이 곳에 들어서면 최초의 스피커 회사로 알려진 웨스턴 일렉트릭(Western electric)사의 웅장한 스피커들이 시선을 잡아끈다.

1700년대 에디슨이 만든 스피커도 직접 볼 수 있다. 이는 태엽을 감아서 소리를 듣는 최초의 씨디 플레이어라고 한다.

영사기는 60여년 전의 제품인데, 지금도 영화를 틀 수 있다. 이 영사기를 활용해 매월 1~2회 무료 영화 상영회가 열린다. 지금의 영화관에선 느낄 수 없는 낭만이 영화를 보는 내내 함께 한다.

애비뉴의 다양한 전시품은 판매용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다. 송혜정 씨가 남편 황경만 씨(57세)와 함께 오랜 외국생활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수집한 것이라고 한다.

노후에 정착할 곳을 찾다 고향인 울산 근처에서 가게를 시작하게 됐다는 이들 부부에게 이곳은 차를 파는 곳이라기보다,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식기의 화려함 뒤로 푸근한 주인장의 마음이 느껴지는 특별함이 있다.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이런 찻집!

토함산에 사는 신선의 집, 전통찻집 '백년찻집'

토함산 산기슭에 자리를 잡은 백년찻집. 나무와 풀, 돌담 사이에 숨은 곳답게, 사시사철 자연을 따라 변하는 다양한 표정을 지니고 있다.

그 옛날 신선이나 왕족이 지었을 것 같은 멋스러운 한옥에 들어서면, 고전적인 인테리어와 형형색색의 등불이 손님을 반긴다.

차림판은 단출하다.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약재가 들어간 '백년차'를 비롯해, 대추차, 계피차, 보이차 등 건강을 생각한 10여가지의 전통차가 전부다. 하지만 아기자기한 전통 다기에 내어지는 차마다 주인장의 정성이 듬뿍 느껴진다.

찻집 주인 이영문 씨(58세)는 "4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기려면 차 맛이 담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커피를 들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커피의 향과 내리는 소리가 소란스러워 '담담함'을 방해한다고.

무심함이 주는 편안함, 소란스럽지 않은 담담함이 그리운 날, 백년찻집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

찾아가는 길 경북 경주시 양북면 추령재길 72
연락처 054-773-3450

일본식 가옥을 개조한 찻집, 목포 '행복이 가득한 집'

도심 속 독특한 건물 외형에, 한 번 쯤 돌아보게 하는 찻집.

특히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목포인지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쉬이 움직이게 하는 곳이 있다.

일본 정원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이 꾸며져 있고, 목조로 이뤄진 2층 일본식 가옥이 찻집의 고즈넉함을 더한다.

내부에는 다양한 옛 소품들이 아늑함을 전한다. 7~80년대 자주 쓰였던 타자기는 물론 옛 전화기까지 있어 어르신에게는 향수를, 젊은이에겐 색다름을 선사한다.

차림판은 일반 찻집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차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빵, 과일 샐러드바가 구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맛있는 차와 디저트로 입은 물론, 다양한 소품들과 아름다운 전경에 눈으로도 즐기는 이곳은 봄, 가을이면 예쁜 빛깔의 나뭇잎 덕에 더욱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하니 기대해도 좋다.

아늑함과, 독특함, 그리고 색다름을 경험하고 싶다면 목포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챙겨 보자.

찾아가는 길 전남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45
연락처 061-247-5887

세상과의 소통 꿈꾸는 할머니의 외로운 삶

"날씨가 추우닝께 옷 따시게 입고오소. 아니, 그냥 와도 내 꺼 뜨신 거 한 개 줄게. 조심히 오이소."
최영자 할머니(67세) 댁을 방문하기로 한 날,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한파에 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전화기 너머 전해지는 따스한 말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당찬 여장부였던 젊은 시절

최영자 할머니의 보금자리는 살림살이가 단출하기 그지없었다. 이불 몇 채와 가재도구 몇 가지가 전부다.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리가 덜 됐다고는 하지만, 짐을 다 풀어도 10평 남짓한 공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할 듯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적으면 책으로 한 권은 너끈히 될 거야."

할머니는 긴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서른에 결혼한 할머니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평범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댁과의 불화가 심해져 남편과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식당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시댁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지만, 한 때는 당찬 여장부였다.

최영자 할머니는 1988년 운전면허를 따고, 1992년부터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택시운전을 했다.

당시만 해도 여자 택시기사가 거의 없을 때라,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싫어 남장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할머니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다들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며 웃었다.

택시를 몰며 사천시 구석구석을 씩씩하게 돌아다니던 그였지만, 다리가 불편한 지금은 텔레비전만이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접점이다.

젊은 시절 택시를 몰며
씩씩하게 돌아다니던 그였지만,
다리가 불편한 지금은
텔레비전만이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접점이다.

야위어가는 다리 … 거동조차 힘들어

2010년 말초신경장애로 장애4급 진단을 받은 할머니는 차츰 근육이 없어지고 하체에 힘이 빠져 지금은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바지를 걷어 보여준 다리가 앙상하게 말라 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의족은 다리에 맞지 않아 자꾸 넘어진다.

할머니는 "택시운전을 오래해서인지, 아니면 젊을 때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런 건지 원인을 모른다"며, "증상이 점점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고 두려운 마음을 내비쳤다.

병명과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몇 차례 검사와 진료를 받고 최종진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없는 형편에도 '나누는 삶' 꿈꿔

할머니의 방 한 편에는 달력종이를 네모나게 잘라 만든 이면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말을 할 사람도, 들어줄 이도 없어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을 글로나마 쓰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만 기다린다. 사회복지사와 봉사자들이 찾아와 반찬을 나눠주고 말벗도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 집을 찾는 유일한 손님인 그들이 할머니는 너무나 반갑고, 고맙다.

최영자 할머니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 속에서 분홍 수면양말 두 켤레와 손난로 핫팩을 꺼내 건넨다. 이렇게 추운 날 찾아줘서 고맙다며 가져가란다. 연신 사양해도 한사코 손에 쥐어준다.

김치와 시락국뿐이지만 점심도 먹고 가라고 한다. 유일한 수입원인 기초수급비와 쌀 구입 보조금만으로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쓰기에도 턱 없이 부족할 텐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따뜻하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수록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와 외롭게 싸우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여한이 없다"는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을 들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차갑게 얼었던 땅도 언젠가는 녹고, 봄을 알리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봄과 같이,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이 할머니의 마음에도 예쁜 꽃 씨 하나 뿌려주기를 기원해 본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도움 계좌
우체국 610535-02-203168
(예금주: 최영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관상동맥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심장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십만번 박동을 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좌측으로 두 개, 우측에 한 개로 대동맥에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이란 이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침착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 죽상동맥경화반(粥狀動脈硬化症, Plaque)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상동맥경화반이 커지면 점차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되고, 혈류가 부족해져 운동 시 흉통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 합니다.

또한 동맥경화반이 갑작스럽게 파열되거나 미란(糜爛/썩거나 헐어 문드러짐)이 발생하면 혈전이 엉겨 붙어 혈관을 막게 되고, 심장 근육의 괴사가 발생합니다. 이를 '심근경색'이라 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기능 저하나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하는 이유와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관상동맥질환은 죽상동맥경화증이 관상동맥을 침범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의 질환과 가족력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죽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위험 인자를 인지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죽상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한 뒤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며, 평상 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앞가슴 부위에 쥐어짜거나 누르는 듯한 지속적인 흉통이 전형적인 증상이며, 통증이 목이나 왼쪽 팔, 어깨로 퍼져나가는 느낌(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식은땀이 나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 형태의 협심증인 '안정형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심한 운동이나 일을 할 때 흉통이 생기며 휴식을 취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협착이 진행돼 혈류가 더 줄어들게 되면,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흉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간혹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추운 날, 이른 새벽에 활동할 때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관상동맥이 오그라들면서 흉통을 유발하는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흉통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흉통이 매우 심하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119구조대를 불러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산동맥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위험인자와 증상을 종합해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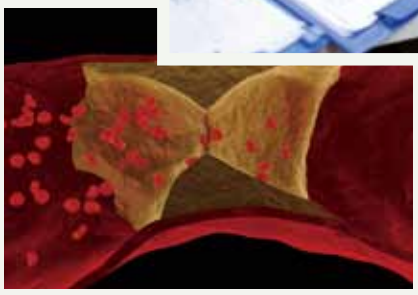
관상동맥을 확인하는 비(非)침습적인 방법으로는 관상동맥 컴퓨터단층촬영(CT)가 있으며, 더욱 정확하고 최종적인 진단을 위해 침습적인 검사인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합니다. 이는 허벅지동맥 또는 손목의 요골동맥 주변을 국소 마취한 뒤, 관상동맥 시작 부위까지 검사관(Catheter)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삽입된 검사관에 조영제를 주입하면 관상동맥의 협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관상동맥질환은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이 원인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변이형 협심증이 의심되면 약제로 유발검사를 진행합니다. 협착이 심각한 경우 즉석에서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고(풍선 확장술), 그물망(Stent)을 삽입하는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입원 기간은 3~4일 내외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금속 그물망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그물망'을 치료에 이용하고 있으며, 당뇨가 있거나 협착된 병변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관상동맥우회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글 안서희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극도의 공포

'공황장애'는 언젠가부터 그리 낯설지 않은 질병이 됐다. 일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알려져 연예인이 잘 걸리는 병으로 오해 받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공황장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현대인의 병'이라고 볼 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공포와 불안 느껴

두려움이나 공포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공황(恐慌)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을 쓴다. '공황'이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특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이렇듯 신체의 경보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병적인 증상을 흔히 '공황장애', '공황발작'이라 부른다.

시도 때도 없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뇌 기능과 구조의 이상,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이 있다.

실제로 공황장애를 앓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한다. 한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50%와 직장인의 61.9%가 공황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에 의해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비슷한 상황에서 또 불안감을 느끼고 공황장애가 심화될 수 있다.

이유 없이 숨이 가빠온다면?

공황장애의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신체증상과 심리적 불안감, 일상으로부터의 회피 반응이다.

두려움이나 공포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공황(恐慌)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을 쓴다.
'공황'이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말한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신체 증상으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져 오다가 호흡곤란이나 질식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어지럼증, 두통, 이명, 소화불량, 메스꺼움, 체온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황장애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본인이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일시적인 공포와 차이가 있다.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난 환자들은 발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경우가 많다. 발작 당시의 정황적 느낌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생활의 많은 부분에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일생에 있어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그러나 대부분 한 번에 그칠 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공황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타당한 이유가 없이 발생한다면 공황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다.
공황장애로 진단 받은 경우에는 8~12개월 동안 항불안제 등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야 한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공황장애 역시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공황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서상숙 상담사 (현대삼호중공업 마음정원)

| 공황장애 예방법 |

- 과로를 피하고, 야간 활동을 줄인다.
-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갖는다.
- 주 3회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한다.
- 술, 커피를 피한다.
-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공황장애 자가진단 테스트

①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② 어지럽고 휘청휘청하거나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③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뛴다.
④ 손발이나 몸이 떨린다.
⑤ 땀이 난다.
⑥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메슥거리거나 토할 것 같다.
⑧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거나 내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
⑨ 손발이 저릿하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
⑩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오한이 든다.
⑪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낀다.
⑫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
⑬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 4개 이상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해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면 공황발작으로 판단.

2017년 시무식 및 안전결의대회

현대중공업이 1월 3일 사내 체육관에서 '시무식 및 안전결의대회'를 갖고, 2017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시무식에는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부회장, 강환구 사장을 비롯해 1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환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사활을 걸고 노력한다면 당면한 일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이를 넘어 다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정책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고유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 이은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예방중심, 실천중심의 안전문화를 강화하는데 전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대형PC선 '세계일류상품' 재선정

현대중공업의 '대형 석유제품운반선'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일류상품'에 다시 선정됐다.
대형 석유제품운반선은 8~12만톤 규모의 석유제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으로, 지난 2008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지만 2014년에 건조 실적이 없이 갱신 심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15년 현대중공업이 5척의 대형 석유제품운반선을 건조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8%를 기록, 세계일류상품으로 다시 인정받았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대형 석유제품운반선을 비롯해 단일기업 가운데 최다인 34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LNG 재기화 실증설비 구축

현대중공업이 대형엔진조립2-2공장에 'LNG 재기화(Hi-ReGAS)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1월 19일 기념식을 열었다.
이 설비는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의 주요 장치를 실제보다 작게 구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개발하는 재기화시스템의 운영 효율과 내구성 검증에 사용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액화 천연가스를 부동액(Glycol)과 열을 교환해 기체 상태로 바꾸는 '간접 가열 재기화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구축한 설비로 '간접 가열 재기화시스템'을 테스트해 이 시스템이 기존 방식보다 부식을 최소화해 유지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LNG선 기술 '특허 무효심판' 승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등록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1월 13일 '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 기술을 지난 2014년 1월 특허로 등록하고 이 점을 내세워 영업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번 판결로 이 기술이 현대중공업 등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하게 수주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LNG운반선 영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사우디서 '최우수 시공사' 선정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우수 시공사(Best Contractor)'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제다사우스발전소(JSTPP) 공사를 우수한 품질로 공기 내에 수행한 공로로 서부지역 최우수 시공사로 선정, 1월 17일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사우드 칼리드 알 파이잘(Saud Khaled Al-Faisal) 사우디 왕자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사우디전력청으로부터 200만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2천640MW(메가와트) 규모의 제다사우스발전소를 수주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34년 연속 '세계 우수 선박'

현대중공업이 34년 연속으로 '세계 우수 선박'을 배출했다.

영국의 조선해양 전문지인 「네이벌 아키텍트(Naval Architect)」는 최근 발행된 신년호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말레이시아 MISC사의 15만 입방미터(㎥)급 LNG선 「세리 카멜리아(Seri Camellia)호」(사진)를 비롯해, 노르웨이 크누센(KNUTSEN)사의 17만6천 입방미터(㎥)급 LNG선 「라만차(La Mancha)호」, 노르웨이 KNOT사의 15만6천톤급 셔틀 탱커(Shuttle Tanker) 「토르디스(Tordis)호」 등 3척을 세계 우수 선박으로 선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1척의 세계 우수 선박을 건조했다.

해양건설지원선 인도

현대중공업이 영국 서브시 세븐(Subsea7)사의 특수선박 건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월 17일 인도했다.

이번에 인도한 특수선박은 해양건설지원선(Heavy Construction Vessel)인 '세븐 아크틱(SEVEN ARCTIC)호'로 길이 162미터, 폭 32미터 규모이며, 해저 파이프 설치작업 등을 지원하는 선박이다.

특히 이 해양건설지원선의 인도는 저유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 자원개발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이메이트 2.0 개발

현대중공업이 최근 차세대 건설장비 원격관리시스템인 「하이메이트(Hi-Mate) 2.0」을 개발했다.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하이메이트 2.0은 웹사이트는 물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 여러 대의 장비를 한 번에 시동 걸고 실내 온도까지 조절해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 연료 잔량, 부품 교환주기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추가했으며,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진단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HMD NEWS 현대미포조선 주요 소식

에틸렌운반선, '세계일류상품' 선정

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건조한 선박들이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우수선박'으로 인정받아 다시 한 번 중형선박 최강자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지난해 말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한 '2016년 세계일류상품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에틸렌운반선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03년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8종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건조한 선박 4척은 영국의 조선해운전문지인 '네이벌 아키텍트(Naval Architect)'로부터 '2016년 세계 우수 선박'으로 선정돼 16년 연속 최고 품질을 공인 받았다.

2017년 경영현황설명회 개최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전 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경영현황설명회'를 개최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한영석 사장이 직접 나서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과 조선 시황 및 회사의 경영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자세와 과제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한 사장은 "회사와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일감확보'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한 수주 경쟁력 제고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노사 대표 생산현장 격려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생산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우들을 찾아 따뜻한 어묵을 전달하며 추위를 녹였다.
한영석 사장과 강원식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은 1월 23일부터 이틀간 8개 팀으로 조를 나눠 도크, 안벽, PE장, 선각공장 등을 순회하며 강추위에도 명품선박 건조를 위해 힘 쓰고 있는 사우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들은 1만여개에 달하는 따뜻한 컵어묵을 현장 사우들에게 일일이 전달한 뒤, 개인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우 3명 '조선해양의날 유공자' 표창

현대미포조선 사우 3명이 1월 12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2017년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에서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사업기획 담당 박주삼 상무는 산업포장을, 시운전부 허종점 기원과 선행의장부 최길섭 기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및 우수조선해양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주삼 상무는 외업생산 전문가로 후행공정 안정화를 실현한 공으로, 허종점 기원은 시운전 기술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점으로, 최길섭 기원은 자동용접 아이디어 및 선저 블록 평형수 펌프 미세조정용 치구 개발 노력 등으로 각각 상을 수상했다.

전 사원 대상 경영현황설명회

현대삼호중공업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경영현황설명회를 열었다.
경영현황설명회는 1월 13일에 노조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19일부터 24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 사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명회에서는 어려운 조선시황, 신조선가의 추락, 자구계획 이행 요구 등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의 최우선 방침인 고용유지와 물량확보를 강조했다.
생산부문장 이상균 전무는 "고통을 감내하고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에 전 구성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LPG운반선, '세계일류상품' 선정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LPG운반선이 세계일류상품에 신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삼호중공업의 LPG운반선이 세계시장점유율 20.7%로 세계 2위를 차지해 2016년 세계일류상품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고 공고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15년 9척, 2016년 4척 등 모두 13척의 LPG운반선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한 바 있다.
이로써 현대삼호중공업의 세계일류상품은 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광탄석운반선, 자동차전용운반선, 원유운반선, 대형석유제품운반선, 중형 컨테이너선 등 총 8종으로 늘어났다.

옥외 휴게실 2곳 조성

현대삼호중공업 외업1관에 사내 최대 규모의 옥외 휴게실이 조성됐다.
외업1부문은 한 달여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외업관 옆 2곳에 옥외 휴게실을 조성하고 1월 4일 사우들에게 개방했다.
이번에 조성된 휴게실은 휴게실A와 휴게실B로 이름 붙여졌으며, 휴게실A는 사우 48명이, B는 124명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모다.
옥외 휴게실 상부의 넓은 공간은 튼튼한 재질의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로 깔아 의장품을 적치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효율을 높였다.
또한 휴게실의 90%는 폐자재를 활용해 조성함으로써 비용절감도 실현했다.

사우자녀 대상 스키캠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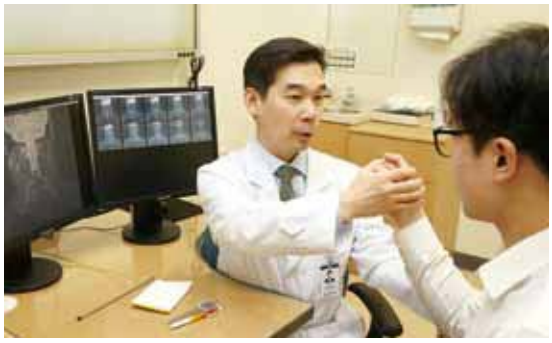
현대삼호중공업이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사우자녀들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의 스키캠프를 열었다.
이는 사우자녀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사회성과 자립심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스키캠프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사우 자녀 100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키 기초 강습, 스키 활강,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했다.

| 현대오일뱅크 |

지역 학생에 장학금 수여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이사장: 문종박)가 12월 말 충남 서산시 대산중학교와 서령고등학교 등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9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충남 서산시 명지초등학교와 대산고등학교에는 부족한 교육 기자재와 도서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1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2003년 출범한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천260명의 학생에게 7억원을 지원했다.

| 서울아산병원 |



'상완신경총 마비 클리닉' 개소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 정형외과가 최근 겨드랑이 근처 '상완신경총'(上腕神經叢)이라는 신경이 손상돼 마비와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클리닉을 개소했다.
상완신경총은 손과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의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으로, 사고 등으로 머리나 목이 큰 충격을 받고 꺾이면 손상되거나 척수로부터 끊길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해 팔과 손, 어깨 근육 등을 움직일 수 없거나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연 치유, 봉합, 재건술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울산대학교병원 |

신종 감염 모의훈련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이 12월 27일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5N6), 메르스 등에 대비한 '신종 감염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울산대병원은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상황을 가정해 환자 예진, 음압격리병상 이송, 감염병 보호구(PPE) 착용 등을 훈련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종 감염 환자의 진료와 간호 등의 대응 시간을 점검하며 위기대응 능력을 높였다.
울산대학교병원은 현재 8I병동을 국가입원치료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 감염에 대비해 음압병상 5병상, 일반병상 46병상 등 모두 51병상의 격리병상을 갖추고 있다.

대학기관평가 인증 갱신

| 울산대학교 |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갱신했다.

대학기관평가 인증제는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해 대학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것으로, △전임교원 확보율(61%)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95%) 등 6개 필수 평가준거를 충족하고, △교육시설 및 학생 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우수해야 받을 수 있다.

울산대학교는 2012년 첫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인증으로 이달부터 2022년 1월까지 5년간 유효한 평가인증을 갱신하게 됐다.

기계설계 산업기사 최다 합격

| 울산과학대학교 |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16년 과정평가형자격 제 2회 외부평가 '기계설계산업기사' 종목에서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 교육기관 내·외부 평가를 받아 취득하는 국가자격이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총 합격자가 37명인 기계설계산업기사 종목에서 13명(35.1%)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겨울 특별 패키지

| 호텔현대 |

호텔현대 경주(대표이사: 고승환)가 겨울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커플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For Your Love' 패키지를 판매한다.

이 상품은 보문호수의 눈부신 전망을 볼 수 있는 객실과 △칠레산 산타 카롤리나(Santa Carloina) 레드와인, △호텔 파티쉐가 만든 축하 케이크와 치즈, 과일 세트 등을 룸서비스로 제공하는 패키지다.

이용 고객은 수영장 또는 사우나 이용권(2인), 토파즈 조식 뷔페권(2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문의: 호텔현대 경주 ☎054) 779-7582〉

로맨틱한 선율 속 숨은 카리스마

일찍이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해온 피아니스트 서혜경이 올 봄 현대예술관 무대에 오른다.

그녀의 연주는 '로맨틱(Romantic)'하다. 긴 라인을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피아노 선율은 마치 연인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노랫소리처럼 달콤하다.

하지만 그 안엔 사랑의 격정과 이별의 슬픔을 닮은 정열적이면서도 파워풀하며 변화무쌍한 힘이 담겨 있다. 피아노 연주만으로 한 편의 오페라와 같은 느낌을 선사하며 대중을 압도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는 선보인적 없는 작품들로 구성했다. 모차르트의 섬세함, 라흐마니노프의 웅장함 등 다채로운 피아노의 매력을 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다.

원숙함마저 느껴지는 로맨틱한 선율과 청중을 사로잡는 불꽃같은 카리스마를 감상해 보자.

- **일 시** : 3월 9일(목) 저녁 8시
-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티켓가** : R석 6만5천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임직원 30~50% 할인)

Profile

서혜경은 11살에 국립교향악단과의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 데뷔 무대를 가진 뒤, 1980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런던필하모닉, 베를린라디오심포니, 모스크바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리카르도 무티, 이반 피셔,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지휘계의 거장들과도 호흡을 맞췄다.

세계적인 수제 피아노 제작 업체인 스타인웨이(Steinway) 갈라 콘서트에 초청받은 피아니스트 25인 중의 한 명으로, 유럽, 아시아 등 월드 투어 리사이틀을 펼치며 전 세계의 팬들과 만나고 있다.

Program

모차르트	판타지 D단조 K397
	피아노 소나타 C단조 K457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S139 (9번 회상 / 8번 '사냥')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B플랫 장조 Op.23-2
	회화적 연습곡 C장조 Op.33-2
	피아노 소나타 No.2 B플랫 단조 Op.36(1931년 버전)
	(Allegro agitato / Non allegro—Lento
	L'istesso tempo—Allegro molto)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입담 콤비가 온다!

화려한 입담과 넘치는 끼, 환상적인 호흡으로 사랑받는 두 남자 '컬투'가 현대예술관을 찾는다.
개그맨 정찬우와 김태균으로 구성된 2인조 개그 그룹이자 음악 그룹인 컬투는, KBS '안녕하세요'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오랜 기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그들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는 2006년부터 11년 동안 청취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컬투쇼 방방곡곡 두드림 콘서트'는 노래, 뮤지컬, 퍼포먼스, 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쉴 새 없는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및 해외 가수들의 공연을 모두 제치고 연간 티켓 예매율 1위를 달성, 누적 관객 수 220만을 돌파하는 등 독보적인 신화를 쓰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다.
최고의 개그 콤비가 전하는 색다른 재미와 유쾌한 웃음! 빵빵 터지는 그들의 공연으로 웃음세포를 깨워 보자.

- **일 시** : 4월 8일(토) 오후 3시, 저녁 7시
-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티켓가** : 1층석 7만7천원 / 2층석 5만5천원 (임직원 30~50% 할인)

현대예술관 공연 안내

정동하 콘서트
- **일 시** : 2월 11일(토) 저녁 7시
-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관람가** : 1층석 9만9천원, 2층석 7만9천원

리차드 클레이더만 내한공연
- **일 시** : 4월 21일(금) 저녁 8시
-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관람가** : R석 9만5천원,
  A석 7만5천원, B석 4만5천원

국악드림콘서트
- **일 시** : 2월 16일(목) 오후 8시
-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관람가** : R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지역작가 초대전
- **일 시** : 2월 17일(금) ~ 3월 12일(일)
  오전 11시 ~ 저녁 7시30분
  (월요일 휴관)
- **장 소** : 현대예술관 미술관

“저희와 함께 축구의 진짜 매력에 빠져 보세요!”

**축구는 11명이 뛰는 스포츠다. 하지만 선수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팬들의 심장을 달아오르게 하고, 선수들을 한 발짝 더 뛰게 만드는 이들이
90분간의 드라마를 마침내 스포츠로 완성시킨다.
올 시즌 문수축구장을 박수와 함성 소리 가득한 ‘극장’으로 만들어 줄 울산의 열두 번째 선수들과 만났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연정 치어리더(이하 김)&이나경 치어리더(이하 이) :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현대 축구단 치어리더 ‘울산큰애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치어리더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김 : 저는 흔히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치어리더에 입문하게 됐어요. 학생 때여서 재미있는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어느새 리더가 되어 있네요.

이 : 고등학생 때 공연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듣고 춤을 따라 추는 취미 덕분에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평소 몸매나 건강을 관리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김 : 몸매 유지를 위해 엄청난 다이어트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워낙 활동량이 많다 보니 따로 식단 조절은 하지 않아요. 단체 회식을 가면 저희 치어리더 팀이 식당 이모님을 가장 많이 부른답니다. 하지만 경기가 없는 날에도 연습을 위해 하루 5시간 이상 뛰고 춤추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축구 응원이 가진 매력이 있다면?

이 : 실내 스포츠와 달리 기본적으로 만 명 이상의 관중들과 응원을 함께 하기 때문에 경기장의 열기가 엄청나요. 파도타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큰 파도가 만들어지거든요!

팬들과 호흡하는 자신만의 비결은?

김 : 치어리더는 멀리서 바라만 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응원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 관중석으로 다가가 박수를 유도하기도 하고, 경기 후 뒤풀이를 마련해 그날 시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팬이 있나요?

이 :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어린이 팬들이 저희 춤을 따라하거나 힘껏 소리 높여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신이 나죠.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를 보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울산현대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가장 좋아하나요?

김 : 특정 선수를 좋아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울산선수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매너도 좋고,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팬들과 소통하려고 하고요.

경기를 더욱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 저희는 경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응원을 시작해요. 경기 시간에 딱 맞게 오지마시고, 조금 더 일찍 경기장을 찾아 응원가를 부르고 춤도 따라 추시면 축구경기가 훨씬 재밌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경기 후에 마련된 뒤풀이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끝으로 울산현대와 현대중공업 팬들에게 한 마디.

김 : 실제로 팬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문수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울산현대가 올해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신나게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봬요!

▶ 울산현대를 위한 응원 동작을 '울산 큰애기'에게 직접 배워보세요!

울산현대 공식 서포터즈 '처용전사' 회장 한삼수 씨

목소리를 모아 그라운드로

"축구장을 처음 찾은 초등학교 4학년, 화려한 플레이로 멋지게 승리하던 울산현대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회상하는 한삼수 씨(34세)는 얼마 전 울산현대의 공식 서포터즈인 '처용전사'의 2017년도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울산현대는 차범근 감독뿐 아니라 김현석, 송주석, 최인혁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아 K리그 최고의 인기구단 중 하나였다"고 회상하는 한 회장은 26년의 시간 동안 변함 없는 애정으로 울산현대를 응원해 왔다.

한삼수 회장처럼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처용전사의 수는 200여명에 달한다.

한 회장은 "선수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 그라운드로 보내는 것이 12번째 선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울산 팬들이 서포터즈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응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도훈 신임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올 시즌에 대한 설렘도 드러냈다. 특히 김도훈 감독이 선수 시절 보여줬던 화끈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울산현대의 새로운 색깔이 된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많은 팬들이 문수축구장을 찾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더 많은 팬들이 울산의 축구와 울산의 응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웃고 함께 뛰는 처용전사가 되겠다"는 그의 굳은 각오를 들으니,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찰 문수축구장의 열기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듯하다.

눈부신 바다 위 시운전의 추억

조희옥 부장 | 현대삼호중공업 계약운영부

바람이 제법 차게 불었고, 약간의 풍랑은 있었으나 하늘은 맑았다. S810호선의 시운전에 승선 체험을 하는 첫날 아침이었다. 아침 해가 한참 떠오른 뒤라 하늘 색이 참 고왔다.

선상에 오르니 많은 사람이 마중나와 있었다. 늘 보던 얼굴인데 배에서 보니 더 반가웠다. 배에 오르자마자 며칠 동안 묵을 숙소부터 찾아갔다.

숙소는 이층 침대가 놓인 넓은 방이었다. 옷장, 책상, 서랍장에 소파와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었다. FPU에 비해 공용 공간이 작은 대신 선원들이 사용하는 방은 넓게 설계된 듯했다.

11시, 본격적인 시운전 착수를 위해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우리와 선주측이 서로 소개를 하고, 시운전 일정, 주의 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시운전 기간에 함께 할 이들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동료애가 느껴졌다.

시운전 일정표를 받아들고 곳곳을 오가며 현장을 참관했다. 이날 시운전에서는 조향 기어 테스트(Steering gear test)와 앵커링 테스트(Anchoring test)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조향 기어 위에 직접 올라서서 컨트롤 룸과 교신하며 시간을 재는 모습, 바닷물을 뒤집어써가면서도 묵묵히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가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다.

테스트는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 특히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어떤 순서로 엔진과 장비들을 살려나가는지를 시험해 보는 블랙아웃 테스트는 새벽에 진행됐다. 당초 새벽 4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앞선 검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벽 2시에 테스트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엔진룸에서 브릿지까지 8층 정도 되는 높이를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했다. 운전 조건에 맞춰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정해진 휴식 시간은 없었고, 24시간 근무체제나 다름없다.

한편으로는 구역마다 노란색 선주 코멘트 딱지가 늘어나고 있었다. 작은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수량은 만만치 않았다. 선주 감독관들의 꼼꼼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역시 인상 깊었다.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스피드 체크를 한다. 일어나자마자 바다에서의 일출을 보리라 생각했지만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우리는 저 멀리 한라산을 앞에 두고 이동하면서 스피드 체크를 했다. 각 방향으로 10분씩 체크하며 평균 속도를 쟀다. 파도와 바람이 없는 조건에서의 속도를 재야 했기에 보정 작업도 들어갔다. 개런티 14.7노트에 14.80이 나왔다. 성공이었다. 겨울임에도 비교적 날씨가 좋아 큰 무리 없이 마쳤다.

스피드 체크가 끝나갈 즈음, 오른쪽 바다에서 갑자기 돌고래 떼가 나타났다.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되어 보이는 녀석들이 반짝이는 햇빛을 받으며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 성공적인 시운전을 축하하는 듯 보였다.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저녁에는 무인 운항을 지켜보며 선장님과 대화를 나눴다. 운전하는 방법, 속도의 종류, 해도 보는 방법, 해사 규정상 운항 조건 등 다양한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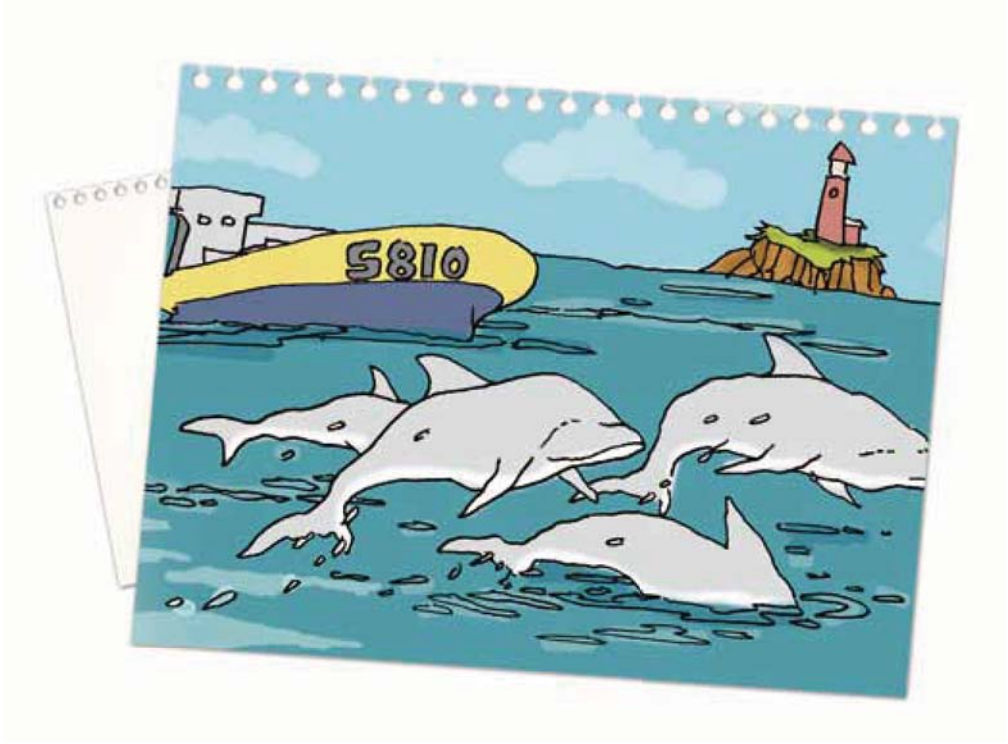
오랜 경험으로 해온 것이기에 모두 이론보다는 실전이 중요했다. 최첨단 장비 덕분에 위험 요소를 피하는 것이 수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한다.

마지막 날인 3일째에도 일출은 보지 못했다. 브릿지에 올라 시운전을 함께 한 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다. 안내 방송을 듣고 짐을 챙겨 나오니 통선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다.

막연하게 느꼈던 시운전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보니 생각

보다 복잡한 과정에 먼저 놀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베테랑들의 열정에 두 번 놀랐다.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 체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만든 배가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되는지를 안다면 담당하는 작업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을 것 같다.
'시운전'은 우리가 건조한 선박이 계약된 바와 같은 성능과 품질로 안전한 항해가 가능함을 증명해주는 과정이다. 또한 선주와 야드의 연결 고리라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도 영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아 척척 해내는 시운전인들의 프로다운 모습에 엄지를 들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S810호선 시운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하며, 친절하게 먹거리를 챙겨준 주방 식구들, 같은 방을 사용한 홍 여사님, 그리고 임용석 반장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준 시운전부 사우들과 선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쳐야 하는 시운전 담당자들은 24시간 근무 체제에 익숙해 당연한 듯 일하고 있지만, 배 위의 제한된 공간에서 며칠씩, 밤낮으로 대기하며 일하기란 무척 피곤한 일이다.
우리 회사 어느 부서든 쉬운 일이 없겠지만, 형편이 된다면 모두 시운전선을 한 번쯤 타보기를 권하고 싶다.



트라이애슬론, 나의 한계를 뛰어넘다

이재영 주임연구원 |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선행기술부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종이에 적어 본 적이 있다.

1순위는 단연코 '세계일주'였다. 학생 때는 방학을 이용해, 입사 이후에는 긴 휴가를 이용해 세계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 이 목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트라이애슬론(Triathlon) 완주에 도전하는 것! 언젠가는 꼭 도전하겠노라 다짐했지만 얼마나 격렬한 스포츠인지 알기에 선뜻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스물아홉이 되던 2015년, 큰 결심을 하고 트라이애슬론 완주에 도전을 했다.

트라이애슬론은 흔히 '철인3종경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수영, 자전거 타기, 마라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경기이다. 올림픽 정식종목이기도 한 일반 코스는 수영 1.5km, 자전거 40km, 마라톤 10km 완주다.

나는 울산과 가까운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목표로,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경기에 사용할 자전거와 수영 슈트를 구입했다. 사실 장비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시간 가량 쉬지 않고 움직일 체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나에게 트라이애슬론 완주의 최대 관건은 수영이었다. 학생 때부터 꾸준히 수영을 했지만 오픈워터에서 장거리 수영을 해본 경험은 전혀 없었다.

퇴근 후 늘 한마음회관 수영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500미터도 겨우 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거리 영법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었다.

마라톤은 주로 아침 출근 전에 화암방파제를 돌며 준비했다. 평소보다 한 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달리는 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땀을 흠뻑 흘리고 샤워를 한 후에 출근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다.

자전거 종목 준비는 주말에 몰아서 긴 거리를 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집 앞에 있는 낙동강 종주길을 따라 밀양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다. 새벽공기와 함께 강을 따라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고 있으면, 온 몸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고, 생각만큼 체력과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었지만 골인지점에 들어오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애석하게도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점검하고 몸을 푼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경기인 수영을 하기 위해 출발선에 섰다.

출발 경적과 함께, 천여명의 철인들이 힘차게 보문호의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다.

늘 훈련했던 수영장과 달리 보문호는 30센티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물 속이 흐렸고,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호흡이 가빠졌다.

수백 미터를 가서야 안정 단계에 이르렀고, 내 페이스를 찾아 무사히 수영을 마칠 수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바꿈터로 가 수영 슈트를 벗고 사이클을 탈 때 즈음에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속도계는 먹통이 되었고, 미숙한 기어변속 때문에 경기 도중에 체인이 두 번이나 풀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보문단지 4바퀴를 돌고나서야 자전거 경기가 끝이났다.

이제 대미를 장식할 마라톤만이 남았다. 하지만 사이클을 마쳤을 때 이미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팠다. 훈련을 하면서 두 개 종목을 연달아 해본 적이 없어 이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웠는데, 과연 대회와 훈련은 달랐다.

훈련을 할 때에는 마라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있는 관절에 통증이 전해지는 듯했고, 꽤 많은 선수들이 나를 추월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다. 5km 반환점을 돌 때 즈음 친구들의 응원소리에 다시 한 번 젖 먹던 힘까지 끌어냈다.

걷고 뛰는 것을 반복하기를 수차례, 드디어 저 멀리 골인 지점이 보였다.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시간 안에 완주한 게 맞나' 생각하던 찰나, 대회 스태프가 완주 메달을 목에 걸어 주었다. 그제야 '내가 해냈구나' 실감이 났다.

2시간 57분 3초. 나의 첫 트라이애슬론 완주 기록이다. 자랑할 만큼 뛰어난 기록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정해두었던 목표인 3시간 이내에 들어왔다.

사실 경기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대체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의문까지 들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기쁨보다도 먼저 든 생각은 '다시는 안 해야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기억보다, 치열하게 수영을 하고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힘들게 피니시 라인을 뛰어 들어오던 순간이 먼저 떠올라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든다.

완주 후 이런 저런 운동하지 않을 핑계를 대면서 1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이 도전기를 쓰기 위해 다시 꺼낸 경기장의 광경과 함성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그 때의 설렘이 떠올라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두 번째 도전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명화(名畵)가 지닌 특별한 힘

최도용 과장 | 현대미포조선 기장설계부

아내의 권유로 '그림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표지에 있어야 할 제목은 찾을 수 없고 그림만 덩그러니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책은 난생 처음이라 신기했다. 읽어 보고 싶은 흥미가 마구 솟구쳤다.

미술을 전공한 저자는 강의와 실습을 통해 미술치료의 효과를 경험하고, 그림이 갖는 치료의 힘에 눈을 떴다고 했다. 저자는 임상현장에서 효과가 좋았던 명화들을 엄선해 이 책에 소개하며 그림의 힘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준다.

그림에는 소통과 치유의 기능이 있다. 생(生)의 의지를 포기한 환자가 어느날 그림을 보고난 후 활력을 찾고 치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며, 수많은 말보다 그림 한 장이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어린아이부터 학생, 치매노인,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까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저자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의미를 찾아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주변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파

화려한 색감이 특징인 조르주 앙투안 로슈그로스의 '꽃밭의 기사'는 아름다운 요정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서 있는 기사의 모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는 이 그림을 보고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 조르주 앙투안 로슈그로스의「꽃밭의 기사」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행복'을 말한다. 그리고 행복한 삶은 혼자서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 동료, 친구들이 있을 때라고 한다.

이 그림에서 기사는 으리으리하고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있다. 반사된 광채가 기사의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주변엔 온갖 화사한 꽃들이 넘쳐난다. 요정들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기사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넓고 푸른 꽃밭에서 기사의 모습은 다른 것과 조화롭지 못하다. 혼자만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독불장군 같다. 꽃의 향기나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

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 광활한 꽃밭에서 요정과 꽃들이랑 같이 뛰놀고 싶다. 꽃밭에 누워 낮잠도 자고 주위와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다. 혼자만의 이상을 바라보며 꿈꾸고 싶지는 않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보살핌이 있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며, 죽을 때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만 잘난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사회와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삶을 간절히 바란다.

바라만 봐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림

▲ 고흐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은 신입사원 시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라본 하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림이다.
퇴근 길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으며, 노란 가로등이 골목길을 밝히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지나갔지만 춥지는 않았다. 노란 가로등과 별빛 때문인지 오히려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고흐는 그림에서 밤(어둠)을 파란색(정확하게 표현하면 코발트블루)으로 표현했다. 파란색은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을 준다. 그래서인지 파란색의 바다는 파도도 잔잔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그림을 보다 잠들면 일상의 힘든 일은 잊고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림에 등장하는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검은 밤바다를 걷고 있다. 검은 바다와 별빛만 있었다면 다소 무서워 보였을 풍경이, 함께 하는 부부로 인해 두렵지 않은 느낌을 준다. 늦은 퇴근이지만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기엔 충분한 휴식이 될 것 같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차례대로 읽지 않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림을 골라 감상해도 괜찮다는 점이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빈센트 반 고흐의 '수확하는 농부' 등 89종의 작품이 있으며, 모두 인생에 힘이 되어주고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 일상이 힘들어 휴식이나 여유가 필요한 사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게임에서 배운 삶의 방식

조해영 대리 | 현대중공업 전장설계부

"이놈의 자식!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또 게임이야!"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니 나의 학창시절이 떠오른다.

어찌나 게임을 좋아했는지, 학창시절의 추억은 온통 게임과 관련돼 있다.

초등학교를 다녔던 90년대 중반은 오락실에서 PC방으로 넘어가는 세대였고, 나는 그 모든 게임들을 아우르며 성장했다.

나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방구 앞 게임기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는 많은데 게임기 수가 부족해서, 100원을 넣고 한 판 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더러운 바닥에 앉아 먼저 온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지켜보며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직접 게임을 하는 것만큼 재미있었다.

동전으로 가득 찬 주머니를 찰랑거리며 오락실로 뛰어갈 때는 얼마나 설렜는지 모른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너무 유명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다. 그 이전까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주로 혼자서 하는 게임이 주류였지만, 이 게임은 최소 2인 이상이 참여해야 재미있다. 최대 8인까지 동시 플레이도 가능하다.

이 파격적인 게임의 등장과 컴퓨터의 대중화라는 시대상황이 기가 막히게 맞물렸다. 그리고 'PC방'이라는 공간이 등장하자마자 게임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주로 '모뎀'을 이용한 집 인터넷은 느리고 사용료도 비쌌다. 하지만 단돈 천원으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PC방은 당시 학생들의 여가 문화를 바꾸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금연석이 없던 시절이라 쾌쾌한 담배연기를 마셔야 했지만, 그 안에서 보내는 즐거움을 방해하진 못했다.

어머니가 하루는 이상한 질문을 하셨다.

"해영아, 넌 남들이 공부를 잘하면 막 배가 아프고 화가 나니?"

평화주의자였던 내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응? 친구가 공부 잘하는데 내가 왜 화가나?"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물어보시던 어머니는 내가 '공부 타입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셨고, 그 덕에 나는 비교적 편안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친구의 선전에 배가 아팠던 건 사실 공부가 아니라 게임이었다. 게임에서 친구에게 지면 부글부글 화가 끓어 올랐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게임에서 지기만 하면 분하고, 승부욕이 활활 타올랐다.

그 경쟁심 덕분에 게임을 꽤 잘하게 되었다. 어떤 분야에서든 반에서 1등을 해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 1등을 해본다는 것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분야이건 1등을 하기 위해선 남들과 다른 1%의 무언가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게임을 통해서 처음 얻은 그 깨달음이, 후에 살아가면서 여러 분야를 도전하고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중학생 때는 '리니지'에 푹 빠져 살았다. 가상세계에서 내 캐릭터를 생성해서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비록 가상세계지만 결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 세계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다.

성인인 사용자도 많았는데 학생이었던 나에게 그들의 행동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감언이설로 믿음을 주고 가상 재화를 빌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기꾼들, 그 세계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합리한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어린 나는 이러한 부조리함이 게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현실 세계와 소름 돋을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상세계에서 지내면서 사기란 사기는 종류별로 당해보았다. 그 덕에 게임이든 실제 생활이든 사기꾼을 걸러내는 눈을 키웠다. 나쁜 경험들이 때론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지난 5년간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즐겨했는데, 이 게임은 5명씩 두 팀을 구성해 서로 싸워 승리하는 형식이다. 농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팀워크가 필요한 게임이다 보니 입사 후에 게임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 방송에도 출연해 보고 대회 수상까지 이루어 냈다. 20년 게임 인생에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좋은 친구들까지 얻어서 꿩 먹고 알까지 먹어버렸다. 온라인 팀워크로 키운 의리가 얼마나 으리으리했는지, 내 결혼식에 축하하러 와준 사람들 중에는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다.

내 인생은 게임과 함께 성장해왔다. 게임을 통해서 배웠고, 즐거웠고, 친구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때 매우 안타깝다. 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취미인데, 몇몇 사건들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만 강해져버린 듯하다.

부모들이 게임만 하는 자식들 때문에 많이 걱정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공부 잘하고 심신 건강하게 지내는 많은 친구들도 게임을 즐긴다.

물론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즐기는 것은 중요하다. 공부와 게임의 균형만 유지한다면 인생의 좋은 동반자이자 삶을 배울 수 있는 연습장이 되는 것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즐길 거리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적에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컴퓨터를 바꿔 주셨다.

나는 언젠가 아들을 낳아서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이 꿈이다. 물론 아내의 핀잔을 듣겠지만, 내 자식도 나처럼 게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라고 믿는다.

BOOK 이 책을 추천 합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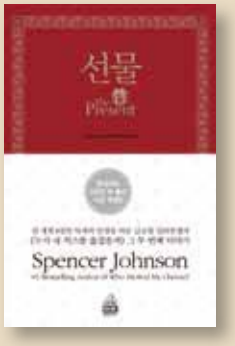
언어의 온도

(이기주 著)

말과 글에는 그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고 합니다.
온기가 있는 말은 듣는 이의 슬픔을 감싸 안아주고, 따뜻한 문장이 담긴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위안을 얻게 합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말과 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마음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고, 얼음장 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작가의 소소하고 따뜻한 시선을 통해, 무심코 지나쳐왔던 우리 주변의 말들과 그 속에 담긴 진실된 마음을 다시금 생각보길 바랍니다.

김재휘 사우
현대중공업 환경보건부

2



선물

(스펜서 존슨 著)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스펜서존슨의 책으로 이 책은 어린 소년이 지혜로운 노인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아가는 삶의 지혜를 '우화'로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행복과 성공의 비밀은 무심히 흘려보낸 '오늘' 속에 감춰져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현재(Present)'라는 평범한 '선물(Present)'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 지금입니다.
이 책은 과거에 얽매어있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물(present)같은 책이 될 것입니다.

천해식 사우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3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이상희 외 3인 著)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은 아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그림책'을 통해 어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책입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들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어른들에게는 어여쁘고 다정한 세계로 들어올 것을 권하고, 그림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것부터 읽어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에게는 어떤 책을 언제 읽으면 좋을지 말해줍니다.
길지 않은 문장의 행간과 펼쳐진 그림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심장이 따뜻하게 뛰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사우 여러분도 따뜻한 그림책 독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사우
선보산업

4

따뜻한 하루

(비영리단체 '따뜻한하루' 著)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편지 82편을 모은 책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끔찍한 사고와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며 지쳐 있습니다.
편지 속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한겨울 추위와 함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세중 부장
현대중공업 플랜트품질경영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wlgusdl10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aji527@hshi.co.kr)

5

하버드 협상 수업

(왕하이산 著)

이 책은 중국의 대표적인 협상 전문가인 저자가 협상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해 주고 그 안에 어떤 협상의 원칙이 적용됐는지 알려줍니다.
협상은 우리 생활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심메뉴 선택부터 거래처와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어디에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협상의 상대는 사람이며, 결국 사람을 설득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협상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통이 강조되는 시기, 이 책을 읽고 많은 사우들이 협상에 대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박원진 대리
현대미포조선 총무부

6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고다마 사에 著)

이 책은 저자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돌며 찍은 사진으로 엮은 포토에세이입니다.
이 안에는 반려동물을 보호소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인에 의해 보호소로 오는 동물은 바로 살처분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임신해서, 나이가 많아져서, 애교가 없어서, 이사를 해서 등 이유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안에 담긴 사진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생명을 다한 동물의 최후의 초상입니다. 인간에게 버림받고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유기견과 길고양이, 그들의 소리없는 목소리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윤선민 과장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실설계부

7

대략난감, 꼰대 아버지와 지구 한 바퀴

(정재인, 정준일 著)

'꼰대' 아버지와 '취준생' 아들, 지구상에서 가장 어색한 부자가 함께 200일간 40개국을 여행하며 그 어떤 친구보다도 편한 사이로 변해 가는 내용입니다.
나라별로 구성된 아들편과 아버지 편을 번갈아 읽다보면 부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웃고 울게 됩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던 아버지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내 자신을 돌이켜 보고 기성세대 혹은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은 아들, 아들을 알고 싶은 아빠. 모든 아빠와 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범석 사우
㈜창평엔지니어링

8

초인수업

(박찬국 著)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힘들다', '외롭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우들에게 '초인수업'을 추천합니다.
니체의 철학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이 책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위로와 동정 대신 자신의 고양과 강화를 위해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요구하는 '초인(超人)'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한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서적이 유행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해결책은 철학 도서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백기동 차장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어려워진 사업,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년째 어려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두며 도움을 요청할 때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 ☎02-746-4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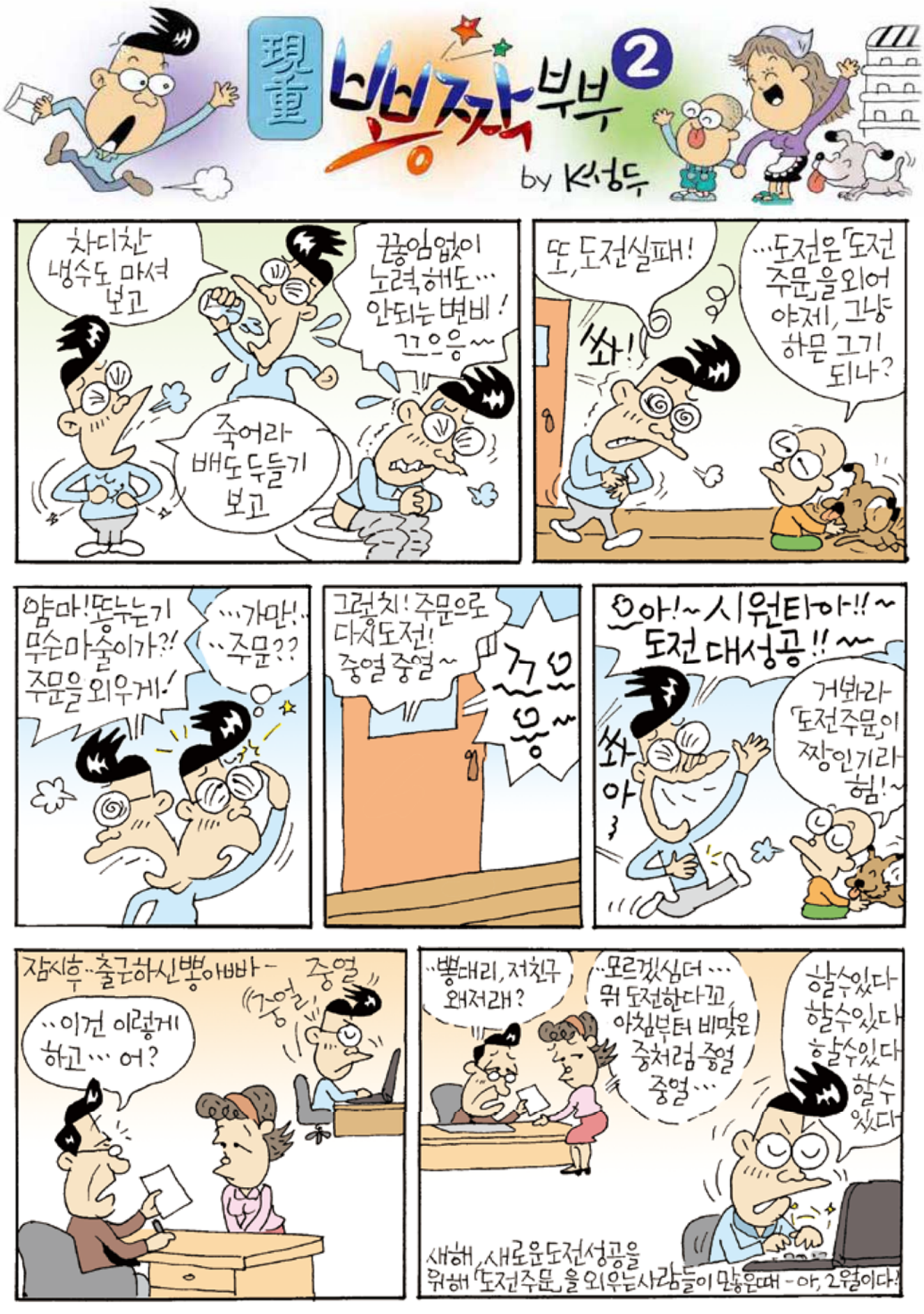
부채액 30억원 이하의 사업자 신청 가능

원칙적으로 채권, 채무는 관련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회생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건실한 사업자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란 법원이 채무액 및 변제기(辨濟期)를 조정해 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회생절차의 한 종류인 간이회생절차란 비교적 채권, 채무관계가 단순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생신청 요건이나 절차를 완화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중 부채액(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이나 기업이 아닌 일반 영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회생개시 신청을 하면, 관리인이나 회생채권자 등이 관계인집회의 결의(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법원이 최종 인가함으로써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가결 간주된 것으로 정하여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채권, 채무를 간이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서' 작성법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변제곤란', '지급불능',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서류의 제목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서'로, 신청인 인적사항에는 '개인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기업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채무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 취지란에는 '1.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조의 4 제 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상호, 목적 등 주요 사항을 미리 정해 공시하는 '정관(定款)'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홈페이지 내에 정관 표준 양식이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現重
뻥짝부부 2
by K성두
차디찬 냉수도 마셔보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안되는 변비! 끄응~~
죽어라 배도두들기 보고
또, 도전실패!
쏴!
…도전은「도전주문」을외어야제, 그냥 하믄 그기 되나?
얌마!똥누는기 무슨마술이가?! 주문을 외우게!
…가만!.. ..주문??
그렇치! 주문으로 다시도전! 중얼중얼~
끄응~~
으아!~시원타아!!~ 도전대성공!!~~
쏴아아~
거봐라「도전주문」이 짱인기라 헴!~
잠시후..출근하신뽕아빠- 중얼
중얼중얼
..이건 이렇게 하고… 어?
..뽕대리, 저친구 왜저래?
..모르겠심더… 뭐 도전한다꼬 아침부터 비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할수있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새해, 새로운도전성공을 위해「도전주문」을 외우는사람들이 많은때 - 아, 2월이다!

눈썰미 퀴즈

※ 그림에 다른 곳이 4군데 있습니다. 3곳 이상을 찾아보세요. / 첨부된 엽서에 표시해 사보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당첨자

| 현대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김재만 현대미포조선 의장2부

호텔현대울산 뷔페권(2인)
전수경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주)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박정제 현대중공업 플랜트정보부
박은희 현대미포조선 인력개발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노동희 현대중공업 ODOPTU PM
박치호 현대중공업 특수선생산2부

울산현대축구단 사인볼(1개)
오창민 현대중공업 종합자재운영부 오동욱 자녀
양혜민 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정영욱 현대중공업 의장5부
박기훈 현대미포조선 의장2부
박순범 현대미포조선 건조2부

후생시설 이용권(1만원)
문영우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기동복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연구개발실
김지용 현대중공업 선실생산2부
김재휘 현대중공업 환경보건부
이세중 현대중공업 플랜트품질경영부
홍경탁 현대미포조선 선행의장부
김형구 현대미포조선 의장2부
이범석 ㈜창평엔지니어링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전영철 현대중공업 시험기술부
최종찬 현대중공업 고압기차단기생산부
신지웅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OUTBACK 식사권
윤경석 현대중공업 BARONIA 공사부
김정하 현대중공업 조선원가회계부
강종철 현대미포조선 선행의장부

| 현대삼호중공업 |

호텔현대목포 뷔페권(2인)
김춘홍 공사지원부

사내 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김동춘 (주)제이비아이
정찬곤 판넬조립부
이영진 전장선실설계부
김인철 대조립부
고연우 HS-POPS팀

호텔현대목포 케이크 교환권(1매)
홍지영 전장선실설계부
최봉열 자재지원부

신안 천일염
임유근 건조2부
김현희 (주)명진

지난호 정답

사보를 읽고

문영우 |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평소에 야시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울산 성남동에도 '큰애기 야시장'이 생겼다는 소식을 사보를 통해 알게 돼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보에서 각 구역의 특징과 음식 등 좋은 정보를 많이 전해줘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 현대미포조선 인력개발부
매달 '나를 만나는 시간' 코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1월호 사보를 통해 지난 목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모두의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춘홍 |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사보를 통해 전해진 노사의 단합된 모습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코너도 늘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시어도어 로빈슨(1852~1896), 버즈아이 풍경(1889)"

풍경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 밖으로 보이는 너른 풍경에 넋을 잃어본 경험, 모두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새처럼 날아올라 더 먼 곳을 보면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화가 시어도어 로빈슨(Theodore Robinson, 1852~1896)은 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혀 예술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파리와 베네치아에서 다양한 화가들을 만나 새로운 화풍과 기법에 눈 뜨게 됩니다.
프랑스 지베르니에서는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는데요.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 클로드 모네 등과 교류를 하면서부터 입니다. 그들을 통해 전통 인상주의를 접한 로빈슨은 이를 기반으로 자국에서 빛과 색채를 아름답게 조화시킨 풍경화를 발표하면서 '미국 인상주의 회화의 선구자' 로 평가 받았습니다.
로빈슨의 대표작 '버즈아이 풍경(Bird's eye view)'은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듯 마을과 숲, 강, 건너편 하늘까지 탁 트인 풍경을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확장시킨 로빈슨의 삶이 연상되네요.
2월에는 일상을 벗어나 먼 곳까지 시선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즐거움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현대중공업그룹이 끝없는 도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선박 3척 세계일류상품 추가 인증

현대중공업 대형석유화학제품운반선

현대삼호중공업 LPG운반선

현대미포조선 에틸렌운반선